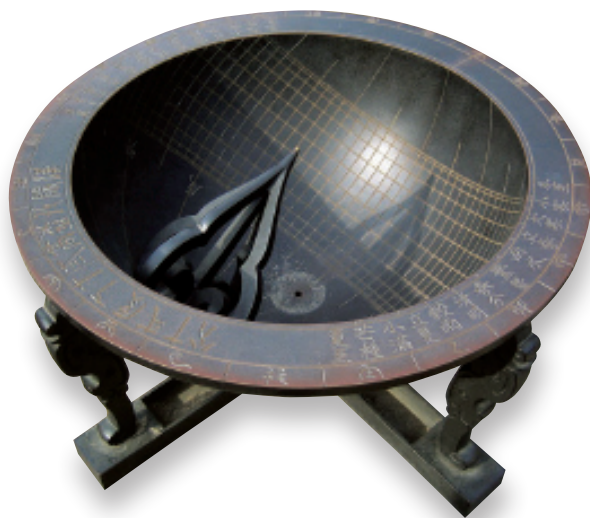




양부일구(해시계)



양부일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시계로 세종 16년(1434) 장영실, 이천 등이 만들었다. 시계판이 가마솥같이 오목하고, 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졌는데, 이는 둥근 지구 모양과도 비슷하다. 오목한 시계판에 세로선 7줄과 가로선 13줄이 그어져 있는데, 세로선은 시각선이고 가로선은 계절선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시각선에 비추어 시간을 알 수 있고, 절기마다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선에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가 다른 것을 보고 24절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 문화재로도 가치가 큰 유물이다.

작고 오목한 가마솥 모양에 네발이 있는 우아한 모습을 가졌으며 청동으로 만든 몸통과, 은상감으로 새긴 글자와 선을 가지고 있어 예술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양부일구는 종로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시계였다는 점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12지신 그림으로 그려서 시간을 알게 해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양부일구는 대한민국 보물 845호이다.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CONTENTS



04 환영인사

05 연구소개

06 서문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소개

11 제 1 장

한국 베이비부머의 코호트적 특성

19 제 2 장

한국 베이비부머의 가족

27 제 3 장

한국 베이비부머의 일과 은퇴

35 제 4 장

한국 베이비부머 가계의 재무상태와 은퇴재무설계

42 제 5 장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가치관

45 제 6 장

한국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

49 제 7 장

한국 베이비부머의 건강

5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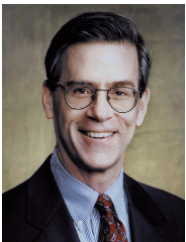
56 참여 연구진

57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소개

MMI소개

MetLife Korea Foundation 소개

환영인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령화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메트라이프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7년 메트라이프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미래의 도전과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2008년 초부터는 고령화 사회, 은퇴 후 삶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설계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은퇴설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해왔습니다. 서울 대학교의 학문적인 연구와 보험사의 실무적인 과정을 접목한 한국 최초의 은퇴설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와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고 ‘행복한 노후&은퇴’ 제시를 위한 Action & Thought Leader’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및 MMI(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와 공동으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은 서울대학교와 MMI의 공동연구를 후원하고 연구사업의 기반을 세우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연구사업’은 한국사회의 가장 최근의 큰 이슈인 ‘전환기적 베이비 부머’라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거대한 인구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는 개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측면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 한국 베이비부머에 관한 논의를 다뤘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MMI가 공동으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함의를 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최근의 사회적 경향과 향후 노후의 삶을 예측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 입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며 기여할 것입니다.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은 본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하는 좋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 이사장 스투어트 솔로몬

연구소개



오늘 발표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결과는 지난 3년간에 걸친 계획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처음 베이비부머에 대한 중단연구 아이디어를 메트라이프 재단에 제안했을 때, 과연 이 연구가 현실화될지 내심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중단연구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가 반짝이는 단기적 결과를 얻기보다는 숨이 긴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재단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는 생각을 아마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좋은 연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재단의 유일한 요구였는데, 이는 기업에 연결된 재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저희 연구팀이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연구에 임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연구계획이 본격화되면서, MMI(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의 연구팀을 만나게 된 것도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MMI는 기업이 지원하는 미국의 노년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독보적 존재인데, 미국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어서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시작단계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주었습니다. MMI연구진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미팅과 수많은 이 메일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머들의 삶이 가지는 독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도 큰 수확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MMI팀이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의 시작과 함께 한국의 부머와 동일한 연령 코호트에 대한 조사를 새로이 시작하여, 미국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도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비교결과 발표는 올 해 중반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연구결과가 영문 책자로 미국에서도 발간되게 된 것도 MMI연구팀의 협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메트라이프 재단과 MMI의 모든 분들에게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에 보내주신 전폭적 지원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책임자로서 지난 일년간의 강행군을 함께 해주신 연구팀의 모든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각 주제에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연구진들이 합심하여,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자료수집 후 첫 결과발표로서, 기초적 수준의 분석만을 한 상태이며, 심층분석을 기다리는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들 귀한 자료들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정보와 시사점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필요한 곳에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동학부 한경혜 교수

서문

720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마무리되는 203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720만여 명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 거대인구집단의 은퇴 및 노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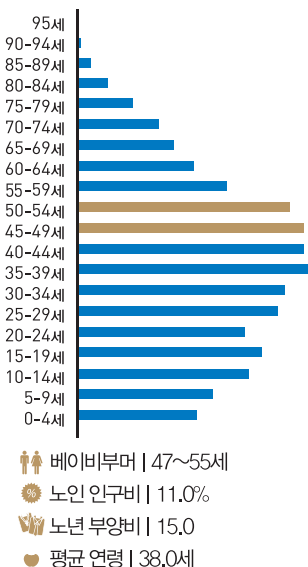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이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노인인구비와 노년부양비는 2010년 현재 11.0%, 15.0이지만,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인구의 주축이

되는 2030년 경에는 각각 24.3%, 37.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 인구집단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내는지, 그리고 개인과 마켓, 그리고 국가가 이 거대인구집단의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비하는지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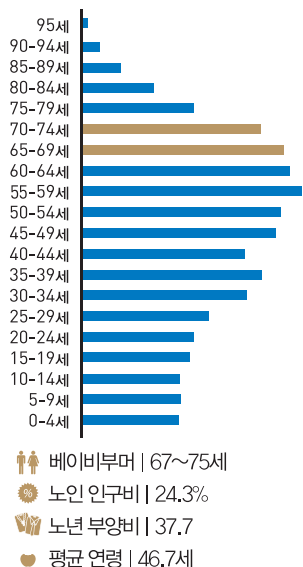
2011년을 기점으로 볼 때,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48세에서 56세까지의 연령대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년기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인구집단이 준비되지 않은

↓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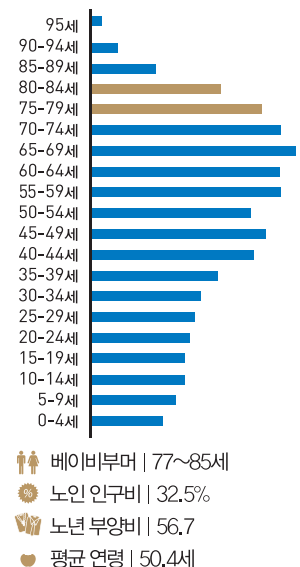
〈2010 추계인구〉



〈2030 추계인구〉



〈2040 추계인구〉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베이비부머 당사자의 개인적 준비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베이비부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베이비부머들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예상되는 도전과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작과 함께 야기될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하였지만, IMF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세대이자,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다. ‘희생 담론’, ‘끼인 세대 담론’,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부담담론’이 지배적 테마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떠오르는 마켓으로서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이다. 부모세대보다 고학력이고 한국경제의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축적하였을 베이비부머들의 인적, 경제적 자원 및 구매력에 주목하며, 이들이 거대 실버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두 측면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논의와 담론들은 주로 서구나 일본의 베이

비부머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거나, ‘베이비부머들은 이럴 것이 다’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 실증연구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실증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은퇴 후 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일상과 가족생활의 양상은 어떠한지, 현재 삶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노년기 삶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체계적 실증자료의 수집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준비는, 이들 집단이 규모면에서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부머 당사자들의 삶의 질 문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의 의미를 가진다. 베이비부머들의 노화에 대비한 현실성있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준비를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들이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2010년부터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패널연구를 시작하였다. 2010년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한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¹⁾(1955년 출생코호트~1963년 출생코호트) 4,6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이 책자에 담았다.

¹⁾ 전쟁 혹은 극심한 경제 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칭하는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로 간주한다. 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합계출산률(TFR)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데, 그러한 추세는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까지 계속되었다.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소개

연구의 지향성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Baby Boomers in Social Context). 개인의 삶의 모습과 생애과정은 그가 속해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위기 등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베이비부머들의 생애과정과 미시적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화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삶의 모습 뿐 아니라 생애사적(life history)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모습을 이들의 과거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들 세대가 안고 있는 문화적 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전환기적 코호트(transitional cohort)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전통적 가치와 삶의 양식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태어난 코호트이면서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한국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의 선봉에 선 세대이기도 하다. 세대관계, 젠더관계, 노사관계 등 거의 모든 사회적 구조와 규범, 가치들이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과 현대의 중간에 놓인 전환기적 세대인 것으로 지적된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전환기적 코호트의 특성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베이비부머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9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내에 연령차가 큰데다가 한국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급격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초기 베이비부머와 1960년대 중반 가까이 태어난 후기 베이비부머가 성장한 시대적 배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두 집단에게 주어진 기회와 제약, 삶의 방식이 구체화된 모습이 상이할 수 있다. 젠더나 교육,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이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현재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집단 내 이질성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들은 집단으로서의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이들을 접근해 온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코호트 구성원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넷째,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치한 중간 세대(middle generation)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령단계상 중년기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동시에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중간세대이다. 가족내 계보상 중간 세대에 위치한다는 점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돌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뿐 아니라 이들의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3세대에 걸친 세대간 지원 교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경험의 주관성(subjectivity)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경제적 상황 및 직업 역할구조 등 삶

의 질의 객관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등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 연령 정체감, 미래 삶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태도(attitude) 및 가치(value)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섯째,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는 어려움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positive aspects)까지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이 거대한 인구집단의 노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들의 강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직면하게 될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 뿐 아니라 이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지를 살펴보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의 ‘짐’이 아닌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갖는 잠재력을 조망해보기 위해, 이들 세대의 강점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영역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7가지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다. 가족, 일, 은퇴, 재무, 건강,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치관의 7가지 영역에 걸쳐,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삶의 질과 생활세계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덧붙여 2010년 1차년도 조사에서는 주요 생애사건과 성장기 배경 등 베이비부머들의 과거 삶의 경험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다.

↓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의 주요 영역



조사 방법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개 시/도의 도시 지역,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4,668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본 추출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초로 하였다. 통반리를 표본지점으로 추출하고, 선정된 표본지점내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선정하여 해당가구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거주하는지를 식별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사는 한국 갤럽에서 담당하였으며, 실사 기간은 2010년 5월 24일에서 2010년 9월 6일까지 약 16주간 진행되었다.

표본설계 및 가중치와 모수추정

2010년 기준으로 만 47세(1963년 출생)에서 55세(1955년 출생)로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으로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목표모집단으로 정의한다.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

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시지역의 일반적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군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모집단을 7개 권역²⁾으로 층화한 후, 권역별로 20개의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³⁾. 2010년 3월 기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동읍면 단위까지 베이비부머세대 인구수를 수집하였고, 조사모집단내의 전체 동읍면수 2,580개 중 225개의 표본 동읍면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본 표본설계의 경우 층화 및 층별 표본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각 조사지점내의 적격가구수(베이비부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완료 후 표본구성비와 조사모집단 구성비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법을 적용하였다.

²⁾ 7개 권역은 서울시, 경기도(인천포함), 강원도, 충청도(대전포함), 전라도(광주포함), 경상북도(대구포함), 경상남도(부산과 울산포함)이다.

³⁾ 조사모집단의 권역별 구성비가 크게는 12배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베이비부머 인구수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비례배분을 할 경우 권역별 추정치들의 표본오차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로 최소 표본수(20명)를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를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국베이비부머의 코호트적 특성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역사적 경험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의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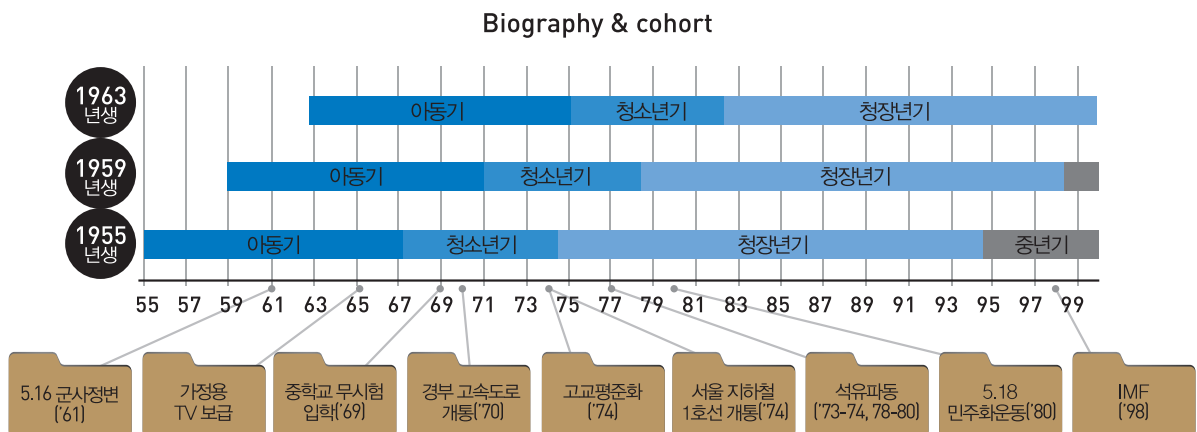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태어나고 자라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베이비붐 세대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군부정권의 등장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다. 전쟁의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50년대에 태어나 산업화의 시작점에서 유년기를 보낸 전기베이비부머는 콩나물교실이나 옥수수죽 급식, '중산수 출진설운동'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전기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대학교 진학은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기회였고, 남아선호 및 여자에게는 고등교육이 필요없다는 인식이 남아있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 업

종에 취직하기 위하여 대규모 이동을 주도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산업일꾼이 된 베이비부머들은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 및 동생들을 위하여 가족경제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한편, 대학에 진학한 인텔리들은 학생운동 등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면서, 대학문화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문화를 주도하였다. 대학을 진학한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엘리트 청년문화를 주도하였다면, 거대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돌이/공순이 문화'의 중심에도 베이비부머들이 있었다. 후기부머로 올수록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승하게 되고, 대학이 점차 보편적 경험이 된다. 세대간 삶의 경험 차이가 커지고, 가르침을 받고 동일시하는 준거집단으로 섰배, 또래가 부모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부모세대와의 거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TV의 보급은 베이비부머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머들의 부모세대가 라디오도 귀한 세대였다면, 베이비부머들

↓ 베이비부머들의 생애과정과 한국사회의 주요 변동



이 자라나 형성한 가정의 안방에는 TV가 자리하게 된다. TV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가치, 소비문화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강력한 매체로 작용을 하게 된다. 연애결혼, 핵가족 지향성, 남녀 성별분업에 기초한 이른바 ‘홈 스위트홈’의 이미지나 ‘가정성(domesticity)’ 강조 등 서구의 가치들이 드라마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런가 하면 베이비부머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아마도 자아실현이나 성취에 대한 자극을 받은 최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은 ‘가정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동시에, 자아실현과 성취에 대한 자극을 받은 세대이다.

경제적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낸 베이비부머들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경제가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가족주 기상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점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불안정 고용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은퇴의 확산으로 중신고용, 평생직장 개념에 기초해왔던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기적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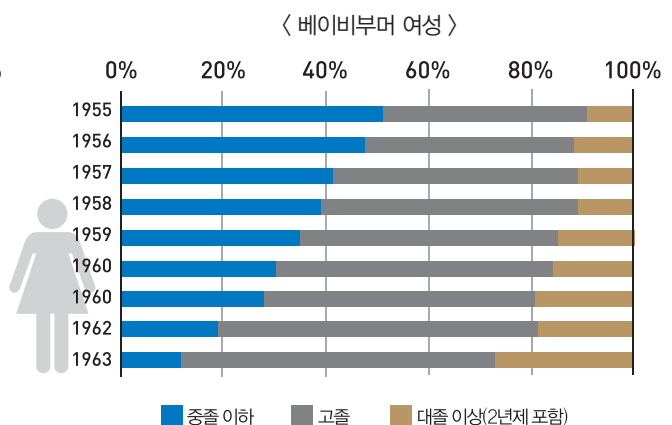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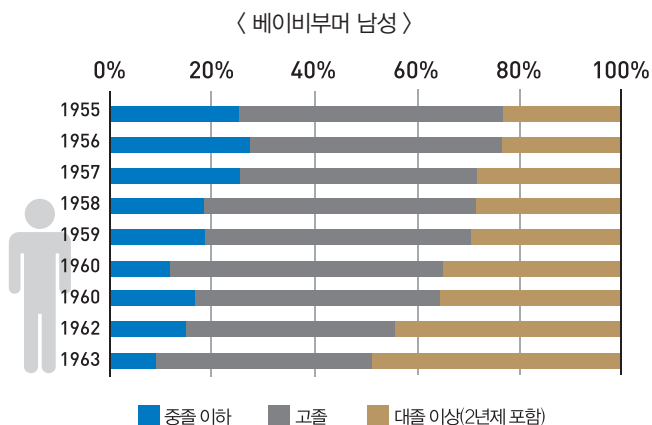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의 삶의 발자취

베이비부머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성장하다 주로 10대와 20대에, 학업과 직장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였다.

베이비부머들의 성장배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54.2%가 읍면지역에서 성장하다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에서 성장하다 도시로 이주한 베이비부머의 92% 정도가 10대와 20대에 도시로 이주를 하였고, 이주 이유는 ‘직장’(49.0%), ‘교육’(20.5%), ‘가족이주’(14.1%), ‘결혼’(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전후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첫 세대

↓ 성과 출생코호트에 따라 베이비부머들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크다

(주:가중치를 적용한 모수추정비율임)



로 이전 세대에 비해 한층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세대로 논의되어 왔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와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을 비교해보면, 베이비부머의 4분의 3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베이비부머의 부친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1%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학(39.11%)이나 초등학교 졸업(39.77%)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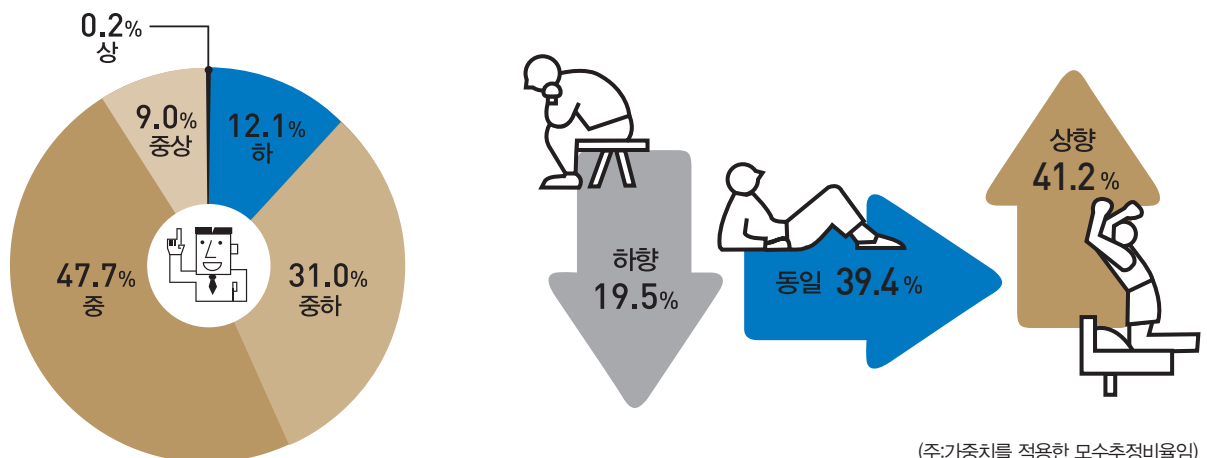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교육격차는 매우 크다.

베이비부머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계층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세대라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비부머들의 4분의 1 정도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거의 4분의 1 정도에 이른다.

또한 출생코호트에 따라서도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관찰되는데, 보다 후기에 출생한 코호트로 올수록 중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감소되고,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부머들이 남성부머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낮지만, 보다 최근에 출생한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의 향상이 나타나면서 남녀간 교육 격차 또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베이비부머들에게서 관찰되는 뚜렷한 교육계층화현상은, 베이비부머의 하위집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삶의 욕구도 다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켓이나 정책 입안자는 베이비부머들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고, 베이비부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과 관련하여, 베이비부머들의 교육수준에서의 이질성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성(inequality)과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수준에서의

↓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평가하며, 부모님의 계층에 비해 자신의 계층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현재와 노년기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기제는 무엇인지를 향후 패널 추적을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대다수가 자신을 중간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세대에 비해 계층 상향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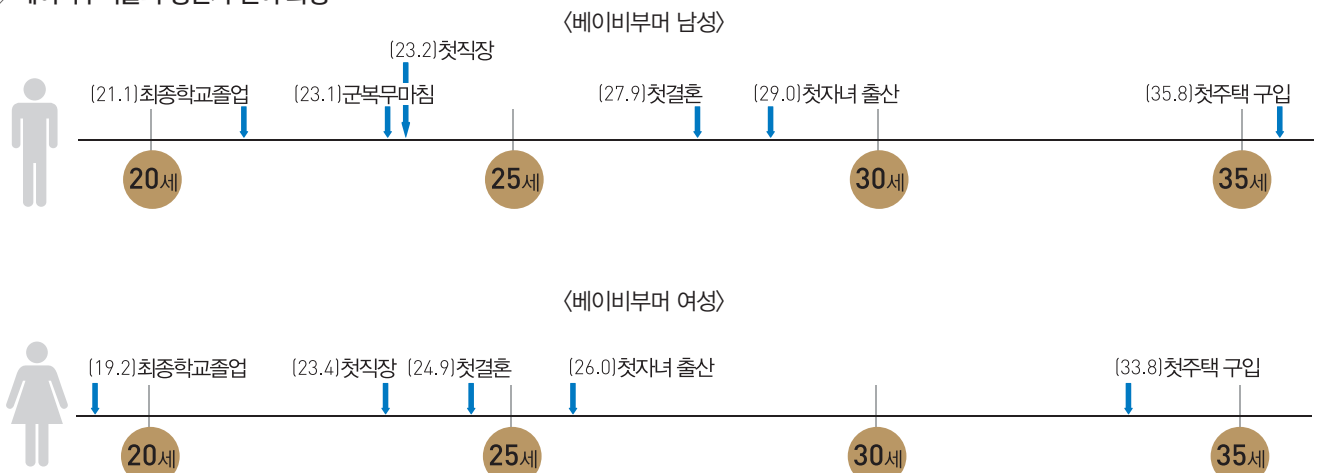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은 88%가 스스로는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1.2%가 자신의 현재 계층이 부모님의 계층보다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계층이 부모님의 계층과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39.3%이며, 부모님의 계층보다 낮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19.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 상승(upward mobility)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세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성인기 전이는 학업 종료, 직업, 결혼, 첫 자녀 출산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남성들은 취업전에 군복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인기 전이과정을 완수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남성 7.9년, 여성 6.8년이다.

성인기로의 전이(transition to adulthood)에 통과여례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는 취업, 결혼 및 첫 자녀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기로의 전이를 의미한다. 베이비부머들의 성인기로의 전이 시기와 순서를 살펴보면, 남성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21세 초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취업을 하였다. 그 후 약 4년 정도가 지난 28세경에 결혼을 하고, 다시 1년 정도가 경과된 후에 아버지로서의 전이가 이루어졌다. 베이비부머 남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한 것은 결혼 후 약 8년 정도가 지난 후인 35.8세이다.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성인기 전이가 남성에 비해 조금 더 이른 연령대에 진행되었다. 19세 초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23세경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25세경에 결혼을 하였다.

⇩ 베이비부머들의 성인기 전이 과정



↓ 나이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50세 전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현재 연령에 대한 인식〉



(주:가중치를 적용한 모수추정비율임)

그 후 1년 정도가 경과된 26세경에 첫자녀 출산을 하여 어머니로의 전이가 이루어졌고, 내집 마련은 결혼 후 약 9년 정도가 경과된 후인 33.8세에 이루어졌다.

베이비부머의 현재

베이비부머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50세 전환기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 늙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베이비부머들의 세대 소속감을 알아본 결과, 약 51%의 베이비부머가 자신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49% 정도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전환기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들의 51.1%가 '50이 된다는 사실이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하였다. 한자문화권에서 나이 오십은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였다. 자신과 주변의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는 의미이지만,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50세는 신체적 노화의 증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큰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연령에 대해 '너무 늙고 기회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7.6%에 불과하다. 이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크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41.5%가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생활만족도를 구체적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의 비율이 불만족한다는 부정 응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재의 삶에 좌절을 느끼고 불행해하기보다는 삶에 비교적 만족하

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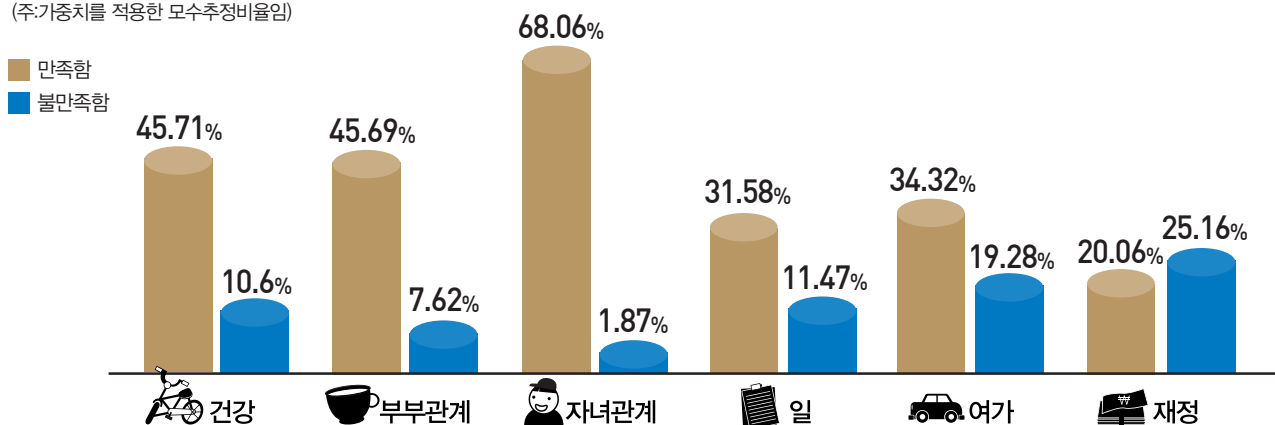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의 발달적 잠재성을 가늠하기 위해 삶의 목적감과 인간적 성장, 통제감, 자기수용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네 가지 영역 모두 척도의⁴⁾ 중간값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고 특히 인간적 성장과 통제감 영역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적 성장(personal growth)은 자신의 잠재력을 의식하고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감(mastery)은 심리적, 정신적 활동들을 통해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변의 기회들에서 장점들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도전정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이들이 '과밀의 세대'로서 가지는 코호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세대 경험에서 얻어진 귀중한 심리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와 발달적 잠재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노년기의 삶도 잘 통합된 건강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베이비부머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 잠재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노년기에도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세대가 생존해 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79.8%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다. 즉 베이비부머 5명 중 1명만이 가족의

↓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해하며, 재정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주:가중치를 적용한 모수추정비율임)



⁴⁾ 여기에서 사용된 척도는 중년기 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Carol Ryff(1989)가 구조화하고 척도로 개발한 중년기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이다. 이들 네 차원은 각각 성인기 발달 과업의 성격을 가지며, 이들을 잘 수행하고 중년기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자원이다. 현재 이 척도는 중년기 심리적 복지와 발달적 잠재성 측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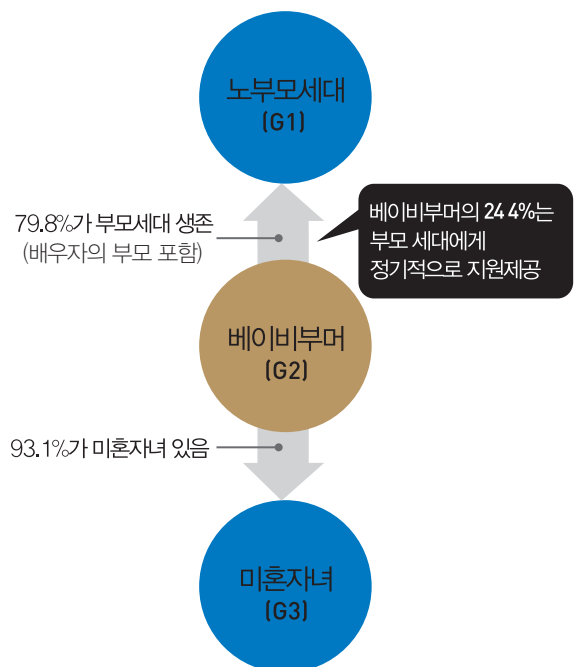
세대구조 속에서 가장 윗세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93.1%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의 8.1%에 불과하여, 조부모로서의 역할 전이가 이루어진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세대적 위치를 볼 때,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은 세대구조 속에서 중간 세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4분의 3이상이 인구학적으로 “끼인 세대”이지만, 실제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게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4분의 1에 못 미친다.

이렇게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중간 세대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에 힘들어하는 “끼인 세대(sandwich generation)”로서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우려와 담론들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끼인 세대”인지를 살펴보면, 전체 베이비부머의 75.3%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동시에 미혼의 자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⁵⁾.

인구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베이비부머들의 4분의 3이상이 미혼자녀가 있으면서 부모도 생존해 있는 “끼인 세대”이지만, 실제로 “위아래 세대에 대한 부담사이에 끼인” 세대로서의 특성은 그리 강하지 않다. 현재 부모세대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혹은 간병 지원 중 한 가지라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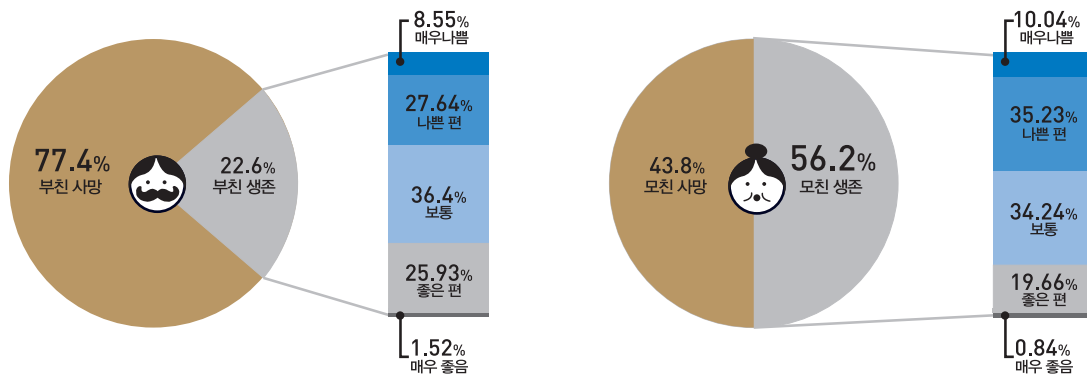
↓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이 부모세대가 생존해있고 미혼자녀가 있는 “끼인 세대”이지만,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다



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4.4%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행동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의미의 “끼인 세대”, 즉 부모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결혼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의 22.9%에 불과하다. 한편, 일부 베이비부머들의 경우(5.9%), 부모세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⁵⁾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끼인 세대”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등록금과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용돈, 그리고 결혼비용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와 지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역시 자신의 부모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미혼자녀가 있고 부모세대(배우자의 부모 포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끼인 세대”로 간주하였다.

⇩ 베이비부머의 노부모, 아직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앞으로 2~3년 후,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가 80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지원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 부모세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노부모들의 연령이 평균 78세 전후로⁶⁾ 아직 초고령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3년 후 부모세대가 80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93.1%가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가 있고,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 베이비부머의 38.3%나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이라는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해볼 때,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 사이에 끼인 세대로서의 부담 및 특성이 곧 베이비부머들의 현실로 구체화될 것이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13.6%가 간병을 제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18.2 시간을 간병에 할애하였다.

부모세대가 초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때 베이비부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노부모에 대한 간병(caregiving)의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원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가족 돌봄 인력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현재 여성 베이비부머의 60.6%가 취업을 한 상태이고, 베이비부머 가구의 57% 정도가 맞벌이 가구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초고령층에 다가가고 있는 노부모들에 대한 간병은 시간과 에너지의 배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를 간병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생존해 있는 2,834명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⁷⁾. 지난 한 해동안 부모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의 2.3%는 정기적으로 간병을 하였고, 11.3%는 비정기적으로 간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생존해있는 베이비부머의 13.6%가 간병을 제공한 것이다. 비록 간병을 한 비율은 높지 않지만, 이들이 간병행동에 사용한 시간은 한 달 평균 18.2시간으로 적지 않다. 특히 정기적으로 간병을 제공한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한 달 평균 간병시간이 72시간으로 상당한 시간을 부모의 간병에 할애하고 있다. 앞으로 노부모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 역시 더 빈번해 질 것이다. 이 때 베이비부머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업과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⁶⁾ 부모의 평균 연령 : 생존 부친 78.74세, 생존 모친 77.60세, 생존 배우자의 부친 77.86세, 생존 배우자의 모친 77.14세

⁷⁾ 질환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부모에게 부머 본인이 직접적 간병을 한 경우만을 포함하였고, 간병인을 고용해드리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가족



소자녀 출산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주기가 이전세대에 비해 크게 변화하였다. 자녀출산기가 감소하고 중·노년기 부부만이 생활하는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부부중심적 가족생활로 재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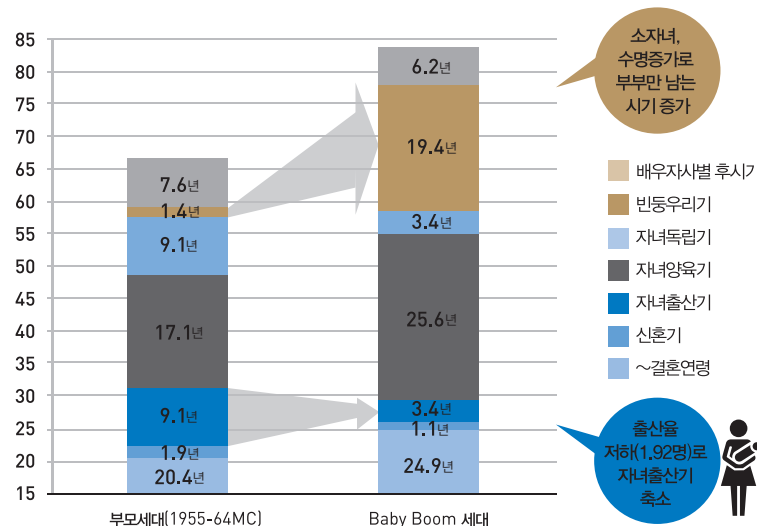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마치 사람이 출생, 성장, 노화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듯이 가족도 일련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점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가족생활주기는 여성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가족생활의 다이내믹과 변화를 압축적이며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결혼으로 가족생활주기는 시작되는데 베이비부머들은 평균 24.95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약 1년 후 첫아이를 낳았다. 평균 2자녀(1.92명)를 낳아 자녀출산기가 그들 부모세대의 약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⁶⁾ 적은 자녀수로 인하여 자녀양육기가

짧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독립후 부부만이 생활하는 시간이 이전세대에 비해 무려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내에서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가족이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우애적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부머에게 결혼은 매우 강력한 규범이자 제도이다. 동류혼 및 연애혼 증가로 이전세대에 비해 애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부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91.4%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1.7%에 불과하고 이혼도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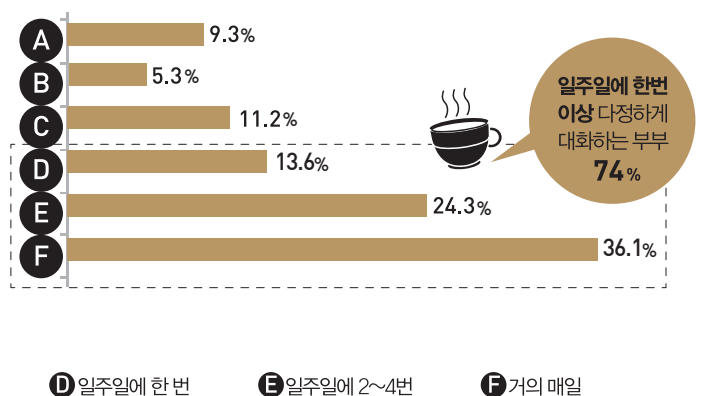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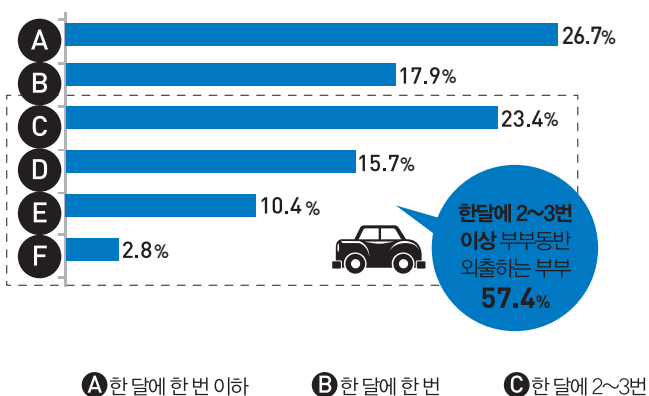
↓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출산기가 축소되고, 자녀가 모두 독립하여 부부만 남는 빈둥우리기(empty nest)는 크게 확대되었다



⁶⁾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의 가족생활주기는 1955~1964년 결혼코호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 부머가 자녀를 처음으로 결혼시키는 연령은 2008년 남녀초혼연령(2010 여성통계)을 근거로 하여 29세로 산정함(남성 31.6세, 여성 28.7). 베이비부머의 평균수명은 2008년도 기대여명(통계청)에 근거하여 84세로 산정함.

↓ 60~70%의 부부는 비교적 빈번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낮은 수준이다. 부부간 연령차와 학력차가 감소하는 동질혼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특히 후기부머로 갈수록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결혼유형은 중매혼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연애혼의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애정에 기반한 민주적 부부관계, 권력이나 역할의 측면에서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른 한편,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가족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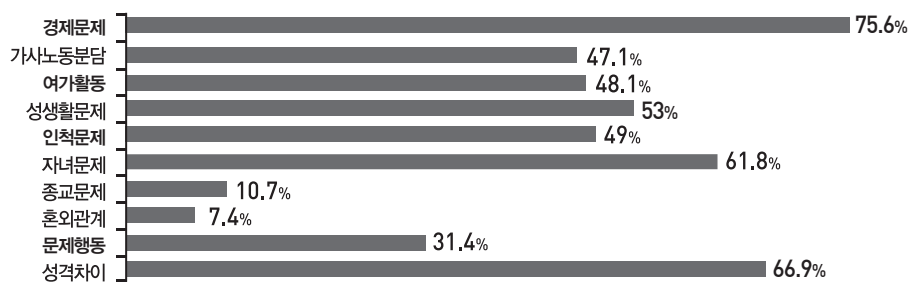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의 약 45%가 결혼에 만족하며 부부의 약 3/4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상호작용 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도 약 1/4에 달하였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5%, '불만족한다'는 약 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관련 사항,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는 사회적 바람직성⁹⁾에 의한 응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베이비부머의 결혼이 아주 긍정적상태라고 해석하기는 조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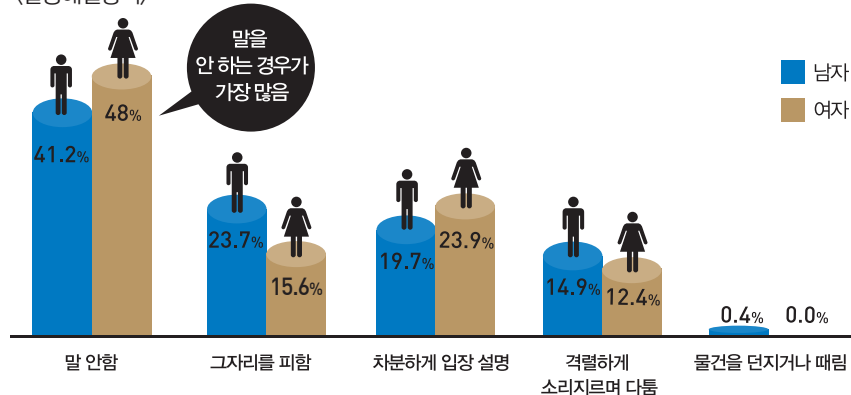
부부동반외출과 긍정적인 대화빈도로서 부부간 상호작용의 질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부부는 약 60~75%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부부간 상호작용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부부동반외출이나 긍정적 대화빈도가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각각 26.7%, 9.3%로 나타난 것 역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⁹⁾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 응답을 잘 하지않는 방식으로 나타남

↓ 부부는 다양한 갈등에 노출되어 있고 갈등 시 주로 회피적 대처방식을 취한다



〈갈등해결방식〉



베이비부머 부부에게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에 대하여 회피적 대처를 주로 하고 있다. 효율적 대처를 못하고 있어 부부 간 갈등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베이비부머의 40%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람직한 갈등대처 및 결혼안정성 고취를 위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큰 갈등영역은 경제문제(75.6%), 성격차이(66.9%), 자녀문제(61.8%)였다. 베이비부머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상 확대기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대학 학비, 결혼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은퇴, 자녀 독립 등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부담, 자녀 진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한 부부 갈등영역으로 부각되

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갈등상황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 가족관계의 질이나 가족해체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들의 갈등대처 행동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말을 하지 않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남성은 부정적 감정을 폭발하는 대처행동 또한 약 15%로 높게 나타났다. 회피적, 부정적 갈등대처는 부부갈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부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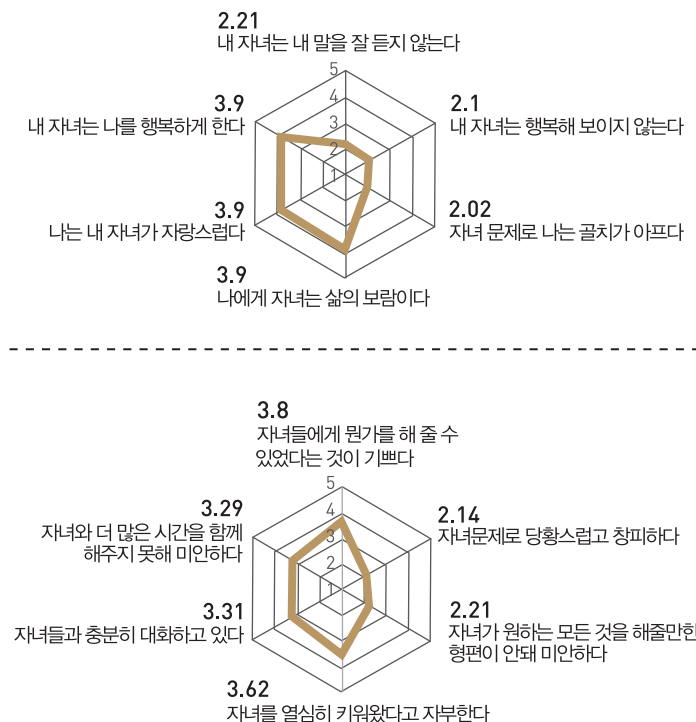
40%가 지난 5년 동안 이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결과 역시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음을 시사한다. 이혼고려가 실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가족갈등이나 가족해체 잠재적 취약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녀들이 이혼의 가장 큰 억제요인인 것으로 지적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들이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는 중년 후반부가 되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의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혼 경향을 보면, 이혼이 주로 결혼 초기의 젊은 연령집단에 집중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중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율 증가

가 높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안정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에게 자녀는 ‘삶의 보람이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긍정적 존재’이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높았다. 베이비부머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자녀관계에서 이들의 전세대와 대비되는 가장 주목할만한 차이는 바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자녀화이다.

↓ 베이비부머들은 자녀로 인해 행복해 하고,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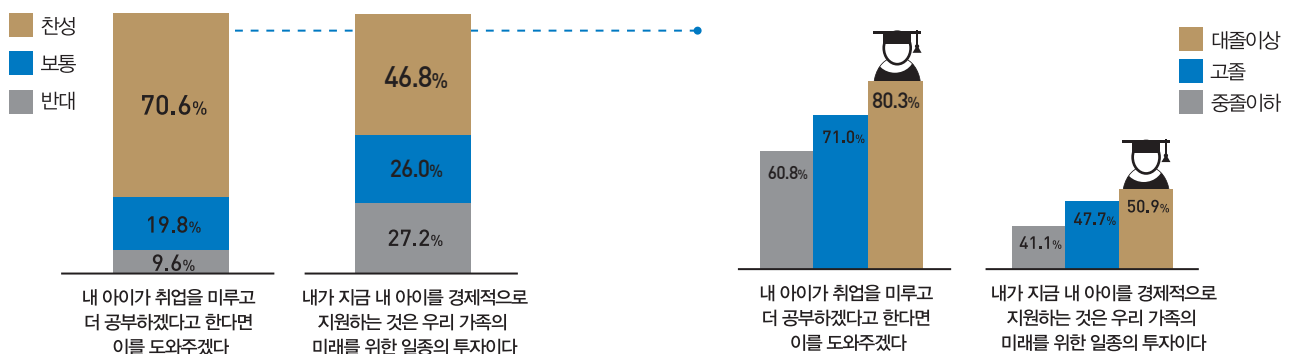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 및 관계의 중요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지적된다. 베이비부머의 68%가 자녀와의 관계¹⁰⁾에 만족하였고, 2%만이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베이비부머들은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삶의 보람이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 열심히 키워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베이비부머는 '자녀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 및 훗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과도한 관심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는 자녀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3년생 전기부머와 1963년생 후기부머에게 공통된 현상이다. 자녀들이 교육을 마친 연령대에 속하

는 전기부머는 자녀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학령기 자녀를 가진 후기부머는 취업 및 진로, 자녀의 학업성과 진학에 대한 염려가 1,2위를 차지한다.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베이비부머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인 것은 자녀의 이성 친구 관계(결혼 및 배우자 문제)와 자녀의 건강이었다. 자녀들이 결혼적령기에 진입하는 전기부머들에게 있어 특히 자녀의 이성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자녀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베이비부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 아이가 취업을 미루고 더 공부하겠다고 하면 이를 도와겠다는 문항에 대해 약 71%의 부모가 찬성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머의 찬성비율은 더 높았다(대졸이상 80%). 은퇴를 목전에 두

↓ 베이비부머는 높은 자녀교육 지원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¹⁰⁾ "귀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단일문항, 5점 척도로 질문함

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헌신은,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재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평생 에프터서비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집안일이나 손자녀 양육, 경제적인 문제까지 보살펴주는 등 부모역할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은 성인이 되어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소위 “캐ਂ거루 자녀”나,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끊임 없이 자녀의 주위에서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의 양상을 가져온다.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에 대한 헌신적 투자와 관심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은 자녀에게 하는 교육적 투자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태도 역시 학력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투자에 대해 보답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이후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집중된 투자가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머들이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 및 사회에 대한 투자 및 배려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와 노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7.7%).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주로 남편부모와 동거하고 있어 부계중심의 한국가족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로 설명된다. 베이비부머의 대다수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은 우선, 한국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3세대 동거가족 비율 자체가 낮아진 현상,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부모들이 아직 초고령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주거가 가능한 점 등을 주요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베이비부머들이 형제수가 많은 세대이므로 이들의 형제들 중에서 노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와 함께 사는 부모님을 분석한 결과, 주로 어머니와,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 노부모 부양에 있어 아들중심, 부계중심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았다. 이는 부양체계로서 가족의 기능약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요구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대부분(92%)은 부모세대와 함께 살지 않고 있으며 부모와의 거주거리도 가깝지 않았다. 노부모와 차로 한 시간 이상, 혹은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였고 방문빈도도 ‘6개월에 한 두번’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멀리 거주하고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노부모에 대한 직접부양 및 도구적 지원 제공을 어렵게 해, 부양체계로서 성인자녀의 역할 감소를 의미한다. 부양관련 가족기능은 그 형태나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베이비부머 3명 중 2명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렸고, 5명 중 1명은 집안일과 같은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런가하면 베이비부머들은 기혼자녀에게도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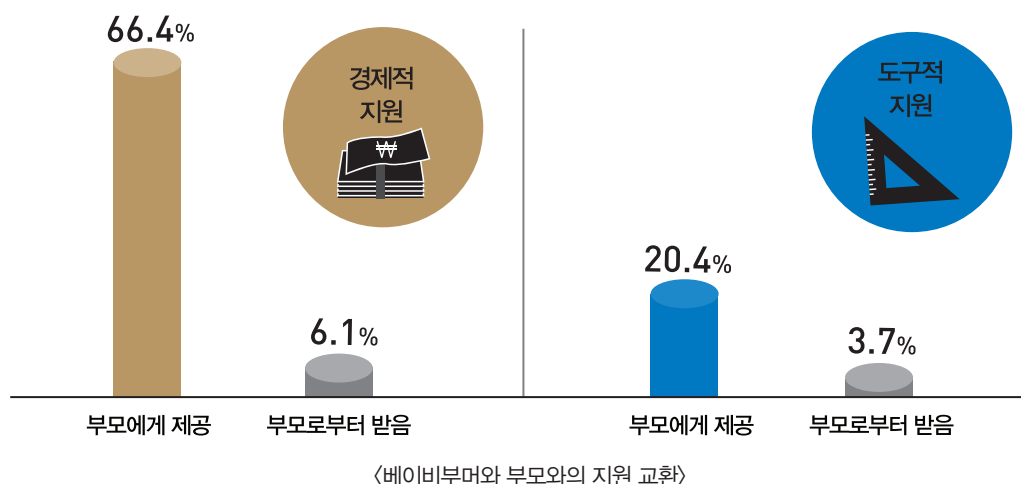
현재 부모가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지원교환을 살펴보았다. 베이비부머의 22.1%가 자신의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41.3%는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66.4%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20.4%는 자신의 부모에게 집안일이나 장보기와 같은 도구적 측면의 도움을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적 지원 4.1%, 비정기적 지원 16.8%).

그런가 하면 베이비부머가 노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도구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6.1%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도구

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3.7%이다. 주로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에게 지원을 드리는 방향으로 세대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베이비부머의 노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혼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17.5%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12.7%는 집안일 등의 도구적 측면의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비율은 높지 않지만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베이비부머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에 대한 헌신이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서 베이비부머 자신의 건강문제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녀에 대한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배분에서 어떠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손자녀를 둔 부모의 상당수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보아주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손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연령단계상 중년기에 속하므로, 기혼자녀가 있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 베이비부머들은 조부모로서 ‘손자녀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약 36%가 손자녀 돌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조부모인 베이비부머가 대안적인 양육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대에 비하여 학력 및 자원이 풍부하고 건강수명도 길기 때문에, 손자녀의 보호자(guardian)로서의 조부모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의 성공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높아진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마켓파워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손자녀 돌봄 뿐 아니라 손자녀들의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투자와 소비를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이 그들의 손자녀들을 위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소비성향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조부모 역할을 가족 내에 국한하여 혈연 관계에 있는 손자녀에 대한 돌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범위를 넘어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아동들에게로 이를 확장하여 사회적으로 후속세대를 키우는 일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경우 다양

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장애아동이나 빈곤아동 혹은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즉 가족 외부에서 노인과 손자녀 연령정도의 아동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노인들에게는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동시에, 취약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혈연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도움 행동이 가족 외부로 향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걱정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차원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일과 은퇴



남성 베이비부머의 93%, 여성 베이비부머의 60% 이상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한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남성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이 없는 6.9%의 남성 베이비부머는 재취업의사가 없는 완전은퇴자(3.5%)와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업이 없는 일시적인 실직 또는 경력단절자(3.4%)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은 60.8%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업이 없는 나머지 39.2%는 완전은퇴자(20.2%)와 실직 또는 경력단절자(7.5%)이며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가 11.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베이비부머 중 은퇴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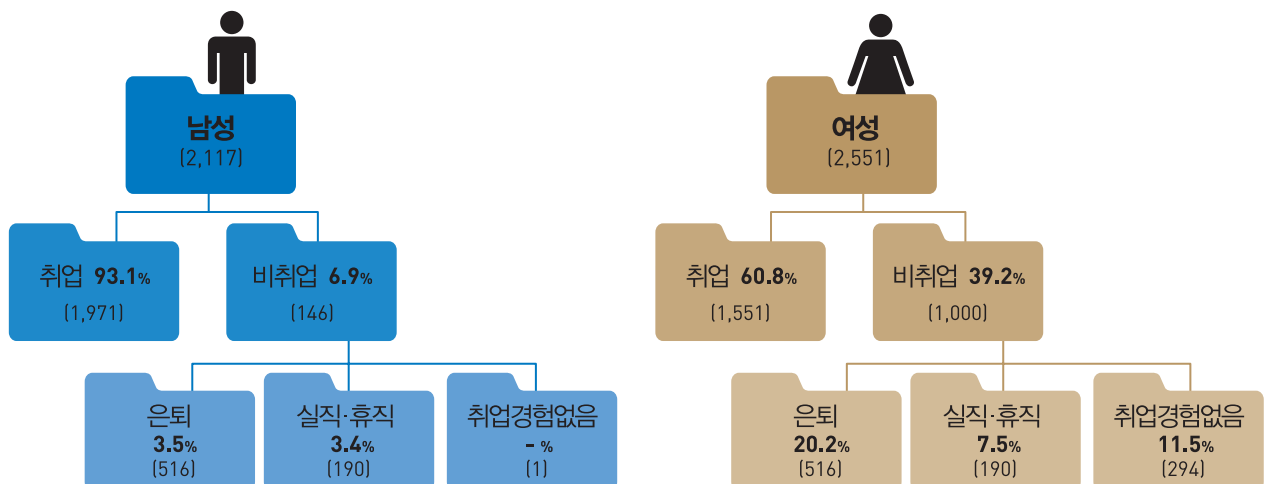
절반 이상이 임금근로자이며(55.3%), 소규모 자영업자가 28.8%,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8.2%,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가족의 일을 돕고 있는 경우가 7.7%였다. 종사상 지위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였다. 취업한 남성 중 고용주의 비중은 11.7%로 여성 고용주의 비중(3.8%)보다 높았다. 반면 취업여성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6.5%인데 반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0.8%에 불과하였다.

베이비부머들의 노동 강도는 높은 편이며 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세계에서의 성취를 삶의 큰 의미이자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직업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근무조건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당 근무일수는 남성이 5.6일, 여성이 5.9일이며,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남성이 9.7시간, 여성이 8.9시간이었다. 주 5일제 근무가 보

↓ 남성 베이비부머의 6.5%, 여성 베이비부머의 39% 정도가 비취업 상태에 있으며,

여성 비취업자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양육을 위해 이른 은퇴를 한 사람들과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다



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들은 과중한 근무 일수와 긴 근무시간을 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약 40%의 베이비부머들이 하루일과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피로감을 느끼며, 44%는 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시간압박을 느끼는 비율도(28.5%)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긴 근무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직을 고민하거나(13.1%), 해고 또는 사업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지각한 비율(7.2%)은 낮은 편이었다. 중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는 일반적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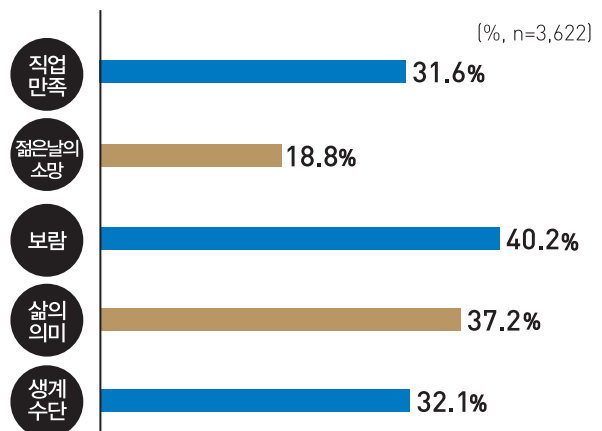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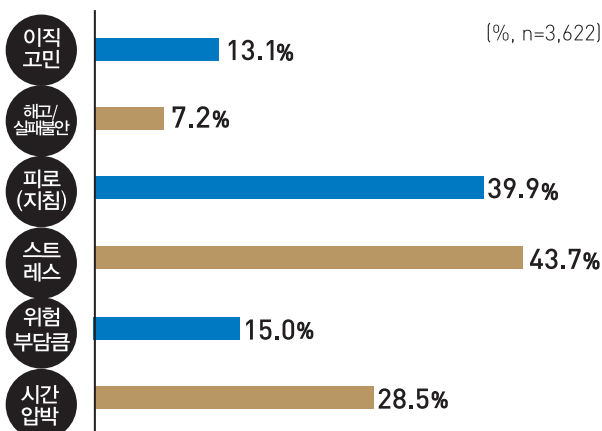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40.2%), 일에서 성취·성공하는 것이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37.2%) 나타났다. 일이 경제적 수입의 원천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사람들은 32.1%이며 응답 평균이

2.82로 척도 중간값 3점보다 낮아서 이들에게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성별과 직업지위에 따라 직업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이 주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 높게 지각하였다. 베이비부머 남성에게 일은 ‘위험부담’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젊은 날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삶의 보람이자 기쁨’이며, ‘일에서의 성취가 삶에서 큰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여성은 일의 긍정적 측면 전반에 걸쳐 남성보다 높게 지각하는 항목이 한 개도 없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 일을 생계수단에 국한된 의미로 지각하는 경향이 더 커서, 남성의 36.9%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3.7%였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비율은 남성 29.7%, 여성

↓ 상당수의 베이비부머가 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지각하였지만,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일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35.2%였다.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 여성에게는 일이 생계수단인 측면이 강하며, 일로부터 얻는 보상이나 긍정적인 정서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이나 고용주와 같이 자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와 시간압박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고용불안정성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드물고 일을 통하여 얻는 보람이나 일에서의 직업만족감 수준도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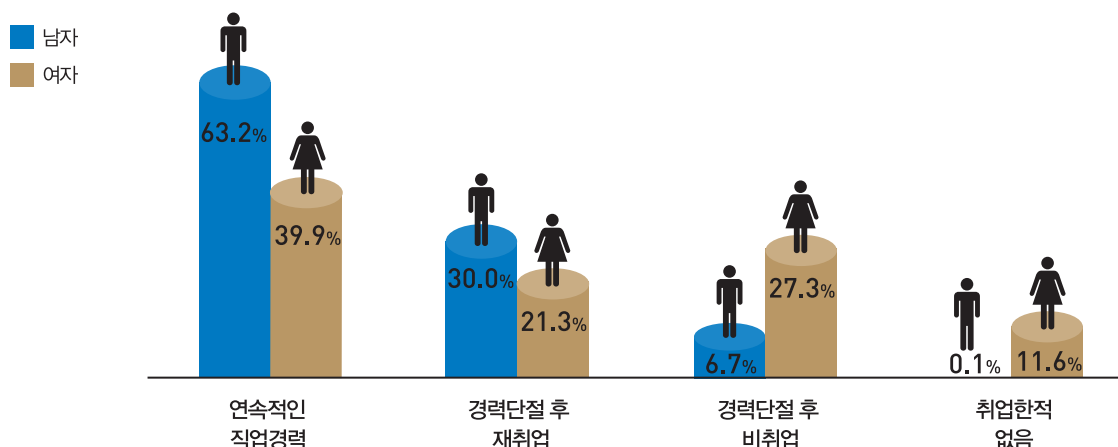
한편 무급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에 비해 일을 통한 만족감이나 보람, 성취감이 적은 대신 생계수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가족일을 돕는 무급근로자들은 주로 여성이며 일로 인해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일을 통한 기쁨이나 열정 또한 높지 않았다.

베이비부머의 43%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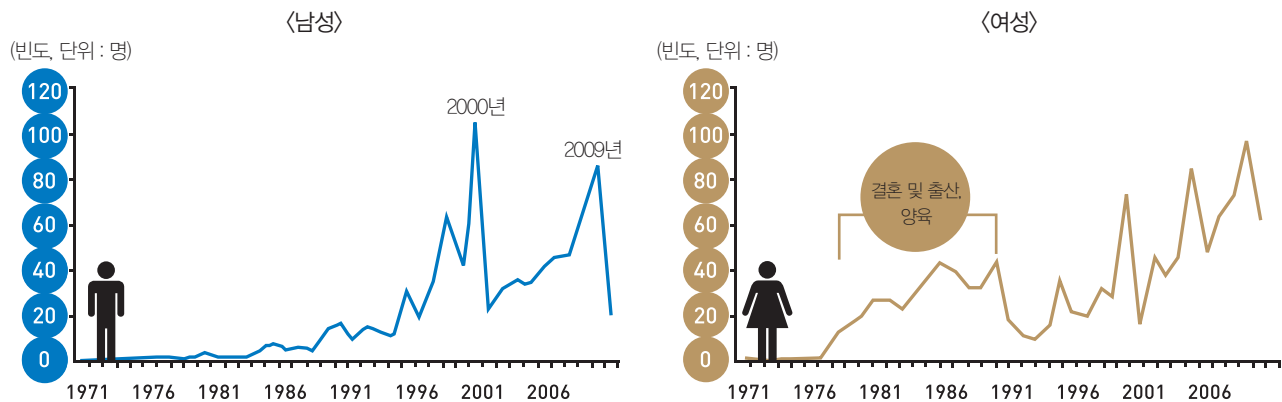
비붐 세대에서 이미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M자형)한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 후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L자형)가 많다.

전체 베이비부머의 절반 정도(50.3%)는 경력단절 없이 비교적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였지만, “주된 직업으로부터의 퇴직”, 즉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도 43%에 달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63.2%가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유지하였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경우(M자형)가 30.0%였으며, 경력단절 후 비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L자형)는 6.7%에 불과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39.9%만이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유지하였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경우가 21.3%, 경력변화 이후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27.3%에 이른다.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경력 상 변동을 더 많이 겪었고,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의 영구적 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남성보다 직업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경력단절 후 비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난다



↓ 남성 베이비부머는 IMF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 시점을 전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였고,
여성 베이비부머는 결혼 및 출산시기에 일차적인 대규모 경력단절이 발생하였다



남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는 직장에서의 명예퇴직이나 사업실패(36%)로,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단절이 이루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남성은 98-99년의 IMF 시기와 최근의 금융위기시점 전후에 집중적으로 경력단절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도 많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의 가족역할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37.6%)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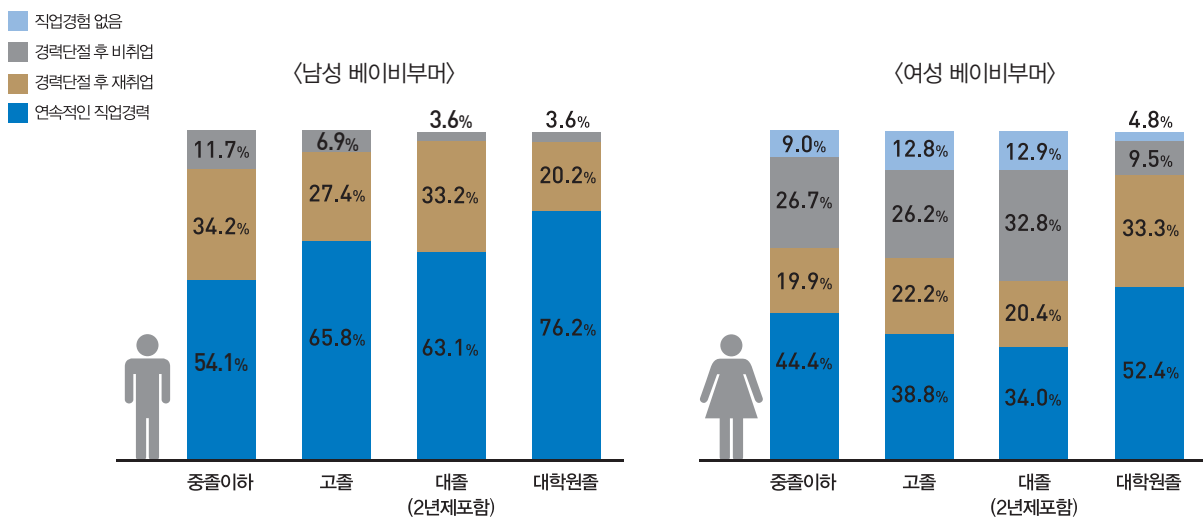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의 직업안정성 및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직업경력 패턴을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연속취업 패턴을 보이는 비율은 대졸이하의 학력층들의 경우 모두 50% 안팎인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층은 71.4%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초고학력층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안정성에 있어서의 교육수준 격차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의 21.7%가 경력단절 이후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비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반면, 대졸 학력자들의 15.1%, 대학원 이상의 초고학력자의 4.8%만이 경력단절 후 비취업 상태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교육수준과 직업경력 패턴과의 관련성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가지는 비율이 높은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원 이상의 초고학력층은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가지는 비율이 높지만, 중졸이하인 여성이 고졸이나 대졸 여성보다 연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 이는 여성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서는 직업과 경제활동의 의미가 교

↓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가지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대학원 이상의 초고학력 집단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집단에서 연속적인 직업경력을 가지는 비율이 높다



육수준에 따라 ‘생계’와 ‘자아실현’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베이비부머의 절반가량이 종사상 지위변화를 겪었으며, 이들의 경력이동 패턴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남성 베이비부머의 52%, 여성 베이비부머의 42% 정도가 종사상의 지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베이비부머들이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후 다시 취업을 하는 비율은 더 높지만, 일단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 비율도 남성이 더 높은 것이다. 종사상 지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사업체 운영자(self-employed)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69.2%)

이었다. 반면 여성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사업체 운영자로 전환한 경우는 40% 수준이었으며, 그밖에 다양한 패턴의 경력이동이 존재하였다. 즉 여성의 직업세계가 남성에 비해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직업세계 경험자체도 남성과 차별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아직 실직 상태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실직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역할 수행을 위해 직업경력을 중단한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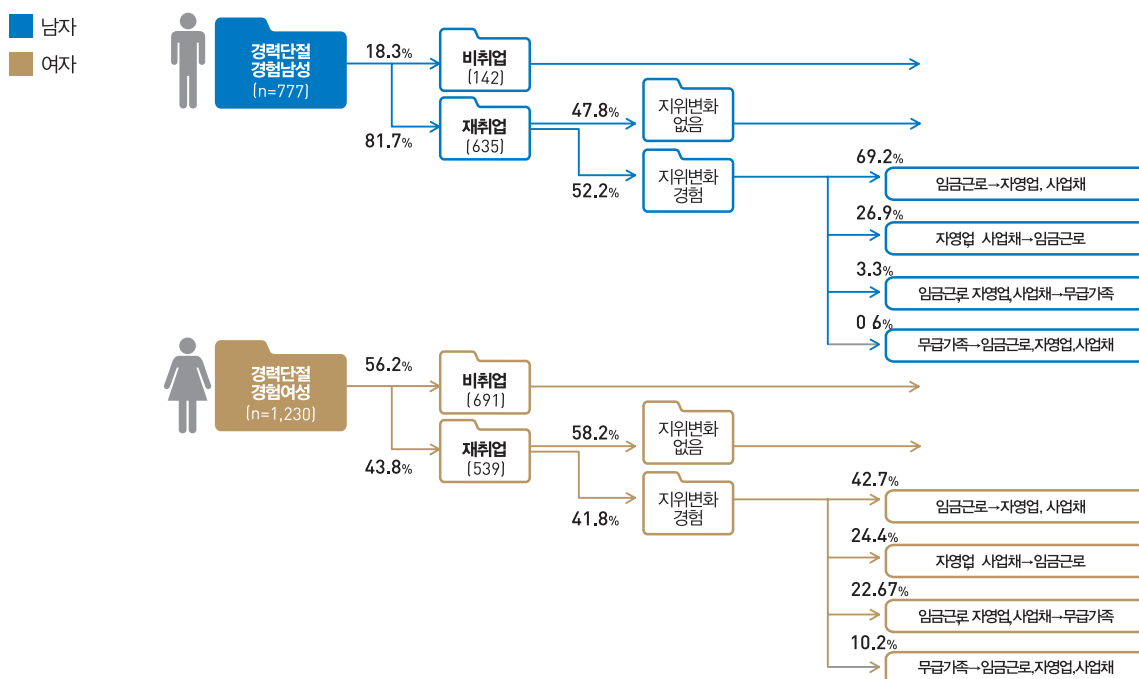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업이 없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대다수(77%)가 여성이었으며, 남녀 모두 건강문제가 퇴직 및 실직의 주된 사유(28%)였다. 남성비취업자는 건강문제와 함께, ‘소득이 적고 장래성이 없어서’, 그리고 ‘명예퇴직 혹은 권고사직의 형태’로 직장을 떠난 비율이 각각 19%, 18%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최근의 금융위기와 이들의 퇴직시기가 맞물리면서 실직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본인건강의 문제가 실직의 주된 사유인 가운데,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가족역할 수행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례가 전체 비취업 여성의 30% 정도였다. 또한 실직 및 경력중단 상태에 있는 비취업자 가운데, 여성의 실직기간은 평균 9년으로 남성의 실직기간(평균 4년)보다 길었다. 즉 여성비취업자의 상당수는 오래전에 퇴직이 이루어진 이후 아직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경력단절 상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절반 정도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

고 있지만 경력단절과 종사상의 지위변화를 경험한 베이비부머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를 맞이한 첫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많은 직업적 변동을 겪을 것이다. 은퇴 후 적응과 경력이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얼마나 복잡한 경로를 거치면서 은퇴에 이르는지, 이것이 소득안정과 직업 및 은퇴 경험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패널연구를 통해 추적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부머의 노년기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관련 정책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종사상의 지위변화를 경험한 남성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여성의 경력이동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베이비부머들은 예상되는 은퇴 시기보다 3년 정도 더 일하고 싶어 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예측하는 자신들의 은퇴시점은 평균 62.3세인 반면, 희망하는 은퇴시점은 약 65세(64.8세)로 약 3년의 간극이 관찰되었다. 전체 58%에 이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그리고 그 이후시기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희망은퇴시점이 늦으며(남성 65.4세, 여성 63.1세),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늦은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임금근로자 63.6세, 자영업자 65.6세, 고용주 66.8세).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정년퇴직 시점은 대략 55세를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제 완전은퇴연령은 남성 평균 71.2세, 여성 평균 67.9세로 실제 완전은퇴연령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의 정년퇴직 시점과 실질은퇴연령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지난 20년간 서구에서 관찰되어왔던 “징검다리 직업(Bridge Job)”이나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같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시점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퇴장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50대 전후반에 이루어지는 정년제 퇴직 이후의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관련된 지식수준(Retirement IQ)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여기에 계층차이가 존재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삶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 즉 은퇴 IQ는 중간점 이상의 수준으로, 대체로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은퇴준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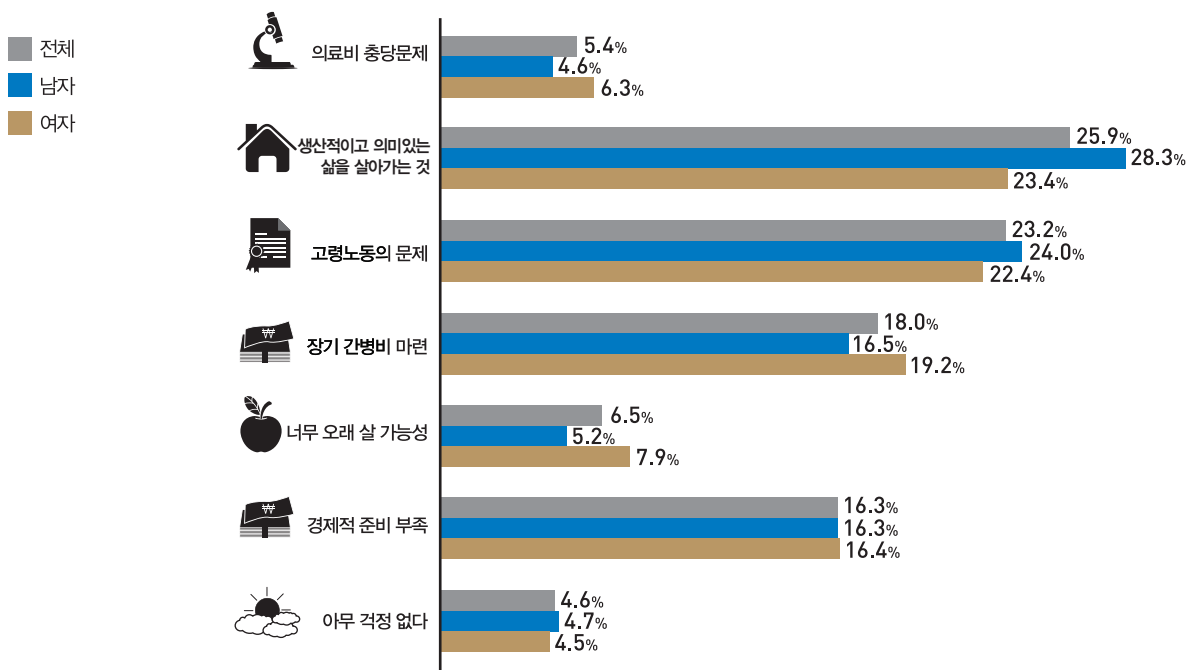
설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퇴 IQ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은퇴 IQ상의 계층 차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은퇴 후 노년기에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달리, 이들 스스로는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비관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였다. 특히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은퇴 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부머가 전체의 80%에 육박하였다. 건강문제, 여가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부분에서 낙관하는 비율은 그보다는 낮은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삶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들에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측면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4 정도(25.9%)의 부머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지목하였다. 또한 노후에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염려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23.2%로 비교적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 악화로 인한 장기간병비 문제(18%), 경제적 준비의 부족(16.3%),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문제(6.5%)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경제적 문제만으로 고령에도 일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여성은 건강문제나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 및 간병비 문제 등에 대

↓ 은퇴 후 삶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항을 알아본 결과,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지에 대해 가장 염려하였다. 특히 남성들이 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 남성보다 조금 더 불안하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후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로 지적되어온 경제적 문제보다, 노년기 삶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남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데, 직업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이라고 하겠다. 베이비부머들에게 경제활동 이외에도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다

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나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사회활동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이 높고 그 전 세대에 비하여 자원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원을 의미있게 쓰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대인구 집단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고 베이비부머 개인들도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국가, 기업의 연계된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가계의 재무상태와 은퇴재무설계

베이비부머 세대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전체 가계소득의 약 1.1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다.

베이비부머가계는 월평균 약 386만원을 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평균소득의 1.1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베이비부머가계의 소득수준이 가계동향조사(2009)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전체가계 평균소득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소득가설에 따를 때 베이비부머가계가 소득과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속하므로 전체가계의 평균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계의 사업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동향조사(2009)에서 발표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베이비부머가계의 경우 완전은퇴로의 전이과정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사업소득이 전체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의 비중이 전체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은퇴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은퇴 후 소득이 다양한 원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소득의 다각화전략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가계의 지출에서 자녀를 위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및 교육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은퇴대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베이비부머가계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은퇴준비 비용보다 자녀의 결혼 및 교육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베이비부머들의 약 절반 정도가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자녀의 결혼비용과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의 은퇴준비보다 자녀의 결혼비용이나 교육비용에 대한 지출부담을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은퇴기로의 전이가 시작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퇴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라이프사이클에서 자녀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속해 있으며, 아직 학동기의 어린자녀를 둔 경우에서부터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 존재

↓ 베이비부머의 3대 지출 부담은 자녀의 결혼 및 교육자금, 본인의 은퇴자금이다

<자녀의 교육자금>

베이비부머 평균 지출 :
평균 대학등록금 연소득의 21%,
평균 유학비용 :
연간 소득의 35%

<자녀의 결혼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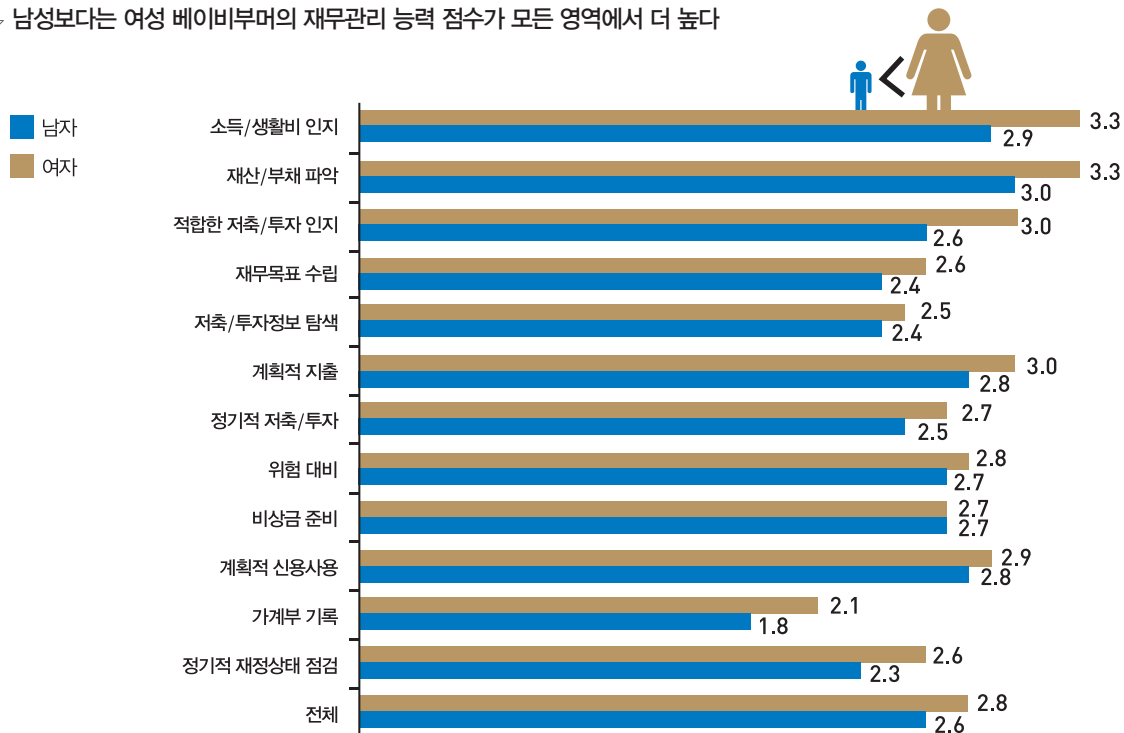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평균 지출 :
연소득의 74%

<은퇴준비자금>

은퇴생활비의 66% 이상을
개인적인 저축으로 조달하려는
계획, 평균 은퇴생활비
211만원 예측



↓ 남성보다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재무관리 능력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더 높다



하는 편차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를 최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재정적 측면의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부모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의 투자성향은 위험회피적이고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만 투자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장기적인 투자설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베이비부머들의 3/4이 수익률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험만을 감수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중 20% 이상이 저축이나 투자기간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설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은 연평균 13.4%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수용성향이 낮은 베이비부머의 속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포트폴리오로는 베이비부머의 투자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베이비부머들이 기대하는 평균 투자기대수익률을 달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은퇴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용성향을 수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의 재무관리 능력은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나타났다.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거나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기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에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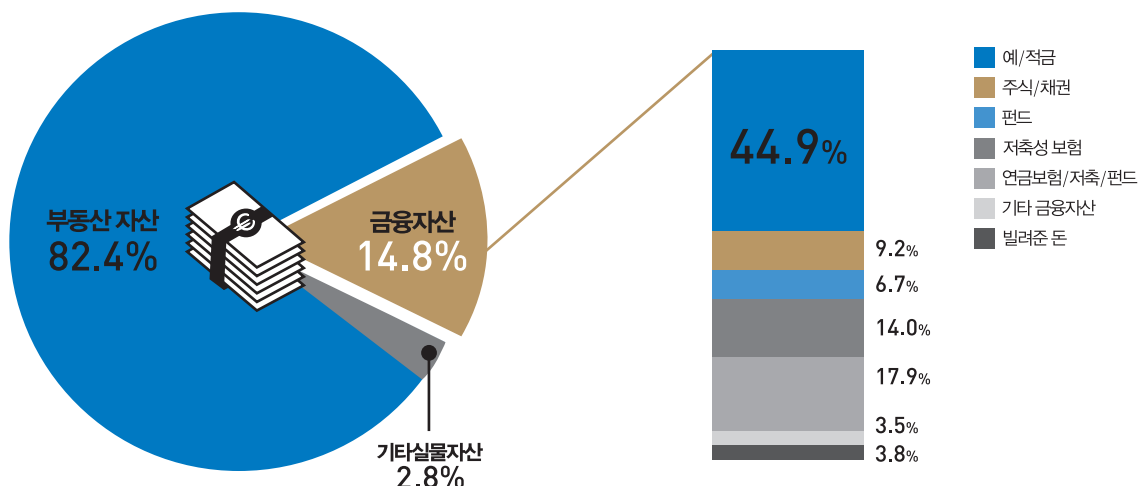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은 자신들의 소득이나 생활비 그리고 재산이나 부채는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저축이나 투자상품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가계들이 계획대로 지출하거나 부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득이 끊겨도 2-3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비상금이나 위험대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양호한 재무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거나 저축 및 투자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는 경우는 전체의 1/4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은 재무설계의 시작이므로 자산 및 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정상태에 적합한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이비부머가계 자산은 다른 계층보다 부동산자산에 치우쳐 있으며, 금융자산은 안전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베이비부머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자산에 치우쳐 있어 전체자산에서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82.4%와 14.8%이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0) 자료에서 나타난 75.8%와 21.4%와 비교할 때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의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집 마련이 베이비부머가계의 주요 재무목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

↓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 및 안전자산에 치중되어 있다



비부머의 주택 소유비율은 약 74%로 가계금융조사(2010)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자가주택소유가계 비율(57.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베이비부머의 경우 58%로 가계금융조사(2010)의 결과(42.4%)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자산의 유동화를 고려할 때 유의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으로 점차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 적절한 시기에 손실 없이 은퇴 생활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금융자산의 76.8%는 예금 및 적금, 각종 연금 상품, 저축성 보험 등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채권 및 주식, 펀드와 같은 상품은 15.9%에 그쳤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한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베이비부머가계의 참여는 아직 미온적이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가계는 11.2%, 펀드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가계는 1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고려한 가계건전성은 베이비부머가계가 전체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가계금융조사(2010)와 비교한 결과 전체가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5.6%이나 베이비부머가계의 경우 이 비율이 9.4%에 그쳐서 자산대비 부채의 비중이 월등히 낮다. 또한 총부채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의 경우 73.2%이지만 베이비부머가계는 63.7%에 그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계의 부채수준이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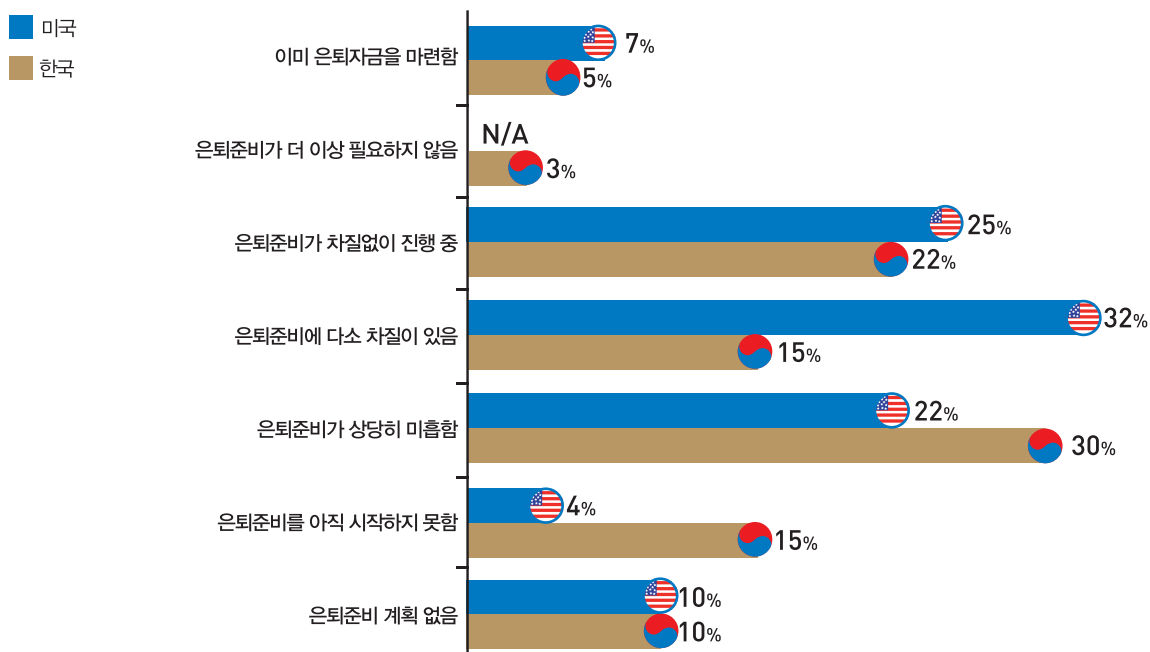
베이비부머가 예상하는 은퇴수준은 경제적으로 빠듯한 수준이며, 그러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평균 은퇴생활비는 약 211만원

(중앙값, 최빈값, 20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베이비부머의 12.4%는 최저생활 수준을, 46.2%는 빠듯한 수준을 영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은퇴 이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9.8%였으며 나머지 11.6%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이비부머들이 예상하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예측하는 필요생활비에 차이가 있으나, 예상하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답한 은퇴생활비는 현재가치로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200만원은 베이비부머가계의 현재 소득대비 52%, 생활비대비 약 72% 수준의 액수이다. 베이비부머가 예상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 결혼 등에 대한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베이비부머에게 예상하지 못한 지출(갑작스러운 부모에 대한 이전지출이나 추가적 의료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후 생활비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를 이미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필요자금을 계산해본 베이비부머는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어 은퇴자금 산정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를 시작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전까지 충분한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accumulation) 만큼이나 은퇴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은퇴자금을 전략적으로 지출하는(decumulation) 것이 중요하다. 기대여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보수적인 은퇴자금 인출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정도는 미국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3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를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생활비의 29.3%는 공적연금으로, 4.6%는 기업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66.1%는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노후 생활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은퇴저축)의 중요성이 미국의 베이비부머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해 본 결과,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저축이나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거나(30.3%), 아직 시작조차 못하거나(15.8%), 계획이 없다고(10.6%)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은퇴준비에 있어 개인의 몫이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은 암울한 미래가 예견된다. 베이비부머의 다수가 그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보장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퇴직금제도가 은퇴소득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형적인 3층 노후보장체계를 거울삼아 후속세대의 경우 기업보장층이 두터워 질 수 있도록 기

업의 역할과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은퇴 이전에 연금형태의 소득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도 개인의 과제로 남는다.

전체 베이비부머의 절반정도만이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은퇴준비는 보험상품, 국민연금,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이비부머 중 절반 정도만이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이비부머들은 월 평균 약 17만원을 은퇴준비를 위해 저축(투자)하고 있었으며 은퇴를 위해 저축(투자)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만을 대상으로 한 저축(투자)금액 평균은 약 32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하는 상품은 보험(10명 중 8명)이 가장 많았으며 10명 중 7~8명은 국민연금에 그리고 6~7명은 예금 또는 적금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명은 은퇴를 준비하고자 부동산을 운용하거나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명이 기업연금, 주식/채권/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은퇴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저축(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이후 생활비 조달에서 66% 이상을 개인적인 저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과는 달리 10명 중 7~8명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은퇴 저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은퇴설계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부족한 은퇴자금은 집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의사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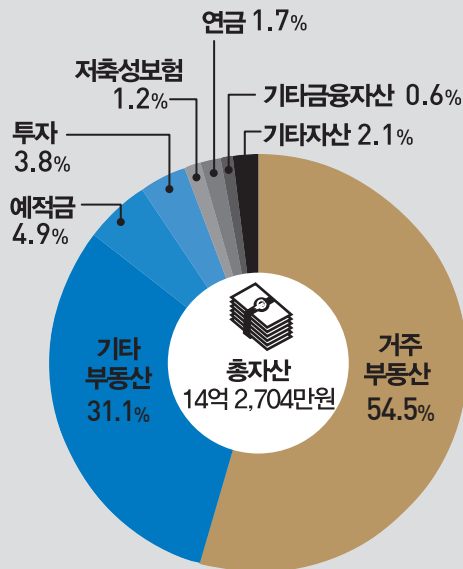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10명 중 4명은 주택의 규모 축소, 이전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자산을 이용하여 은퇴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자가주택을 은퇴자금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은 주택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특히 보유주택을 은퇴소득원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주택연금제도의 대상주택과 대상자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계층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현금형태의 은퇴소득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부동산연계증권)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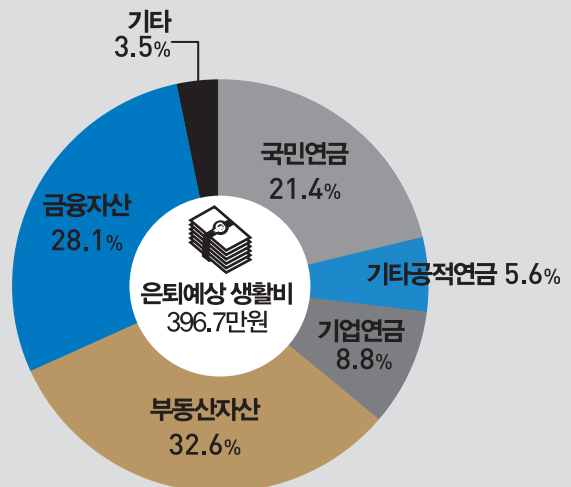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상위 10%, 그들은 누구인가?

베이비부머 가계 중에서 소득 및 자산이 상위 10%인 가계(N=107)의 재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상위 10% 가계는 연평균소득 1억 1,753만원(중위수 1억 800만원), 평균 총자산 14억 2,704만원(중위수 11억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계의 95% 이상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구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동산자산이 전체자산의 85.6%로 높은 편이었으나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주식 등의 직접금융 투자자산과 펀드 등의 간접투자자산의 비중 및 보유액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부채는 평균 1억 1,937만원이었으며 이중 부동산관련 대출이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1〉 상위 10%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산구성



〈그림2〉 상위 10% 베이비부머 은퇴생활비 조달 계획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은 약 180만원이며 이 중에서 약 35%를 은퇴를 위한 저축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61세 경에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은퇴 이후 예상되는 생활비는 월평균 396.7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은퇴생활비 중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8%를 기업연금으로 나머지 64% 이상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상위 10% 베이비부머는 10명 중 7명이 은퇴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 졌거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7.5%는 은퇴에 대한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아예 은퇴를 위한 저축 및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상위 10%의 베이비부머의 평균 기대수익률은 19.5%로 전체평균 13.4%보다 높았으며, 손실감내수준도 전체평균 14.2%보다 높은 17.8%였으며 투자위험수용성향에 있어서도 높은 이익을 위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평균의 2배를 보였으며 최소수익을 위하여 최소위험만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즉 상위 10%의 베이비부머들은 평균기대수익률이나 손실감내수준이 높으며 위험수용성향 또한 상대적으로 공격적이었다. 상위10% 베이비부머는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계획은 중장기인 경우가 전체응답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베이비부머들의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남의 비리에 눈을 감는다? : 개인에게 큰 이익이나 해가 없다면 사회정의나 공정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공정성이나 사회정의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권익과 공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비리를 알아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모른 채 한다’는 진술에 대해 베이비부머는 절묘하게 3등분되는 비율로 나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진술에는 42.3%가 그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남을 신뢰할 수 있을까? : 전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나를 항상 이용만 하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에 관해서는 약간 상반된 태도가 존재한다. 베이비부머들의 70% 정도가 타인을 쉽게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타

인을 쉽게 믿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늘 이용만 하려고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베이비부머들의 61%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사회를 신뢰가 없는 사회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신뢰에 관해서는 상반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즉 베이비부머는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늘 이용하려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경계심 없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관계도 희생한다? : 베이비부머들은 성공 지향적인 태도가 강하지만,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사정을 희생하면서 집단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개인과 집단/사회를 대비시킬 때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 살펴보면, ‘개인 사정이 있어도 직장의 회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이 더 강하다. 베이비부머들의 38%가 개인의 사정이 있을 때는 직장의 회식에 꼭

↓ 베이비부머는 사회정의 및 개인의 권익과 공익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신뢰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치관 영역	문항	전통적	중간	진보적
공정성과 사회정의	1. 다른 사람의 비리를 알아도 내게 손해가 없다면 모른 채 한다	33.0	33.2	33.7
	2. 개인의 권리라도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42.3	36.7	21.0
신뢰	1.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9.4	21.9	8.8
	2.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	12.6	26.5	60.9

(주 : 진보적 응답은 공정성과 개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신뢰의 방향을 의미한다)

↓ 베이비부머는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외국에 대한 문화개방에는 적극적이거나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가치관 영역	문항	전통적	중간	진보적
개인 지향	1.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가족/사회관계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4.3	37.3	28.4
	2. 개인 사정이 있어도 직장 회식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5.6	36.3	38.0
국제화	1.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13.6	49.0	37.4
	2. 내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찬성할 것이다	36.4	39.7	23.9

(주 : 진보적 응답은 집단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사회관계를 중시하며, 국제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인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개인 사정이 있어도 직장의 회식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집단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응답자는 26%로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희생할 수 있다는 태도가 베이비부머에게서 엿보인다. 베이비부머의 37%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희생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보다 약간 적은 34%의 베이비부머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성공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의 성공보다는 가족이나 사회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는 2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는 싫지만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직의 요구에 응하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의 희생도 감소할 수 있다는 베이비부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대화 시기에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던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성공은 지상목표였다. 이제 40대 후반~50대 초중반의 연령에 이른 베이비부머들에게 성공은 여전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 집단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자기관성의 태도가 묻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내 자녀의 국제결혼은 불편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더 많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37%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문호를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즉 베이비부머들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중간적이면서 개방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가 40%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국제결혼을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36.4%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대로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비율은 24%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의 시대에 베이비부머들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해 원론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하는 진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적인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는 연령의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지만 이

들의 가치관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영역이 발견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집단으로, 연령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의 태도와 가치관은 이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공정성과 사회정의 1(남의 비리에 대해 모른 채하지 않는다), 개인지향 1(직장의 승진을 위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희생해서는 안된다), 국제화 1(외국인에게 더 많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국제화 2(내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도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공정성과 사회정의 2),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신뢰 1)의 문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적인 응답의 비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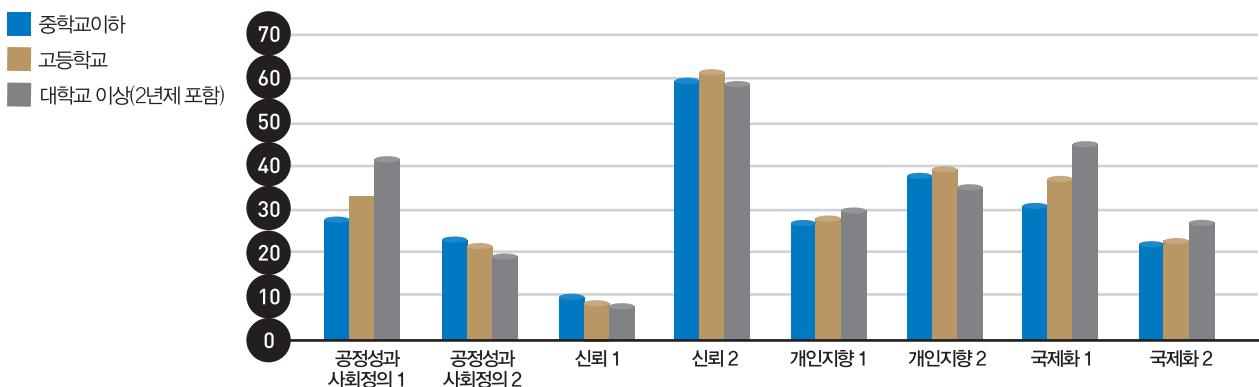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강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갖는 영향이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비리

에 대한 태도나 국제화의 영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 이후 사회변동은 사회제도와 규범 속에서 개인을 강제하고 억압 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화라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속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사에서 나타나는 교육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연령의 측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치관 측면에서의 이질성은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양상에서의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환경들이 더욱 급속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이질성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질성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분열 혹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 : 각 문항에 대해 진보적 응답을 한 비율임)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사회모임 중 베이비부머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동창모임(55.8%)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사회관계망에서 학연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준다. 가장 자주 참여하는 모임은 종교 활동이다.

동창모임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모임은 지역의 친구나 이웃과의 사교모임(43.1%), 종교의례(31.4%), 스포츠모임(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임 참여자들의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종교의례와 종교관련 소모임, 그리고 취미 및 교양모임이 한 달에 2~3회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스포츠모임, 자원봉사, 그리고 사교모임에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참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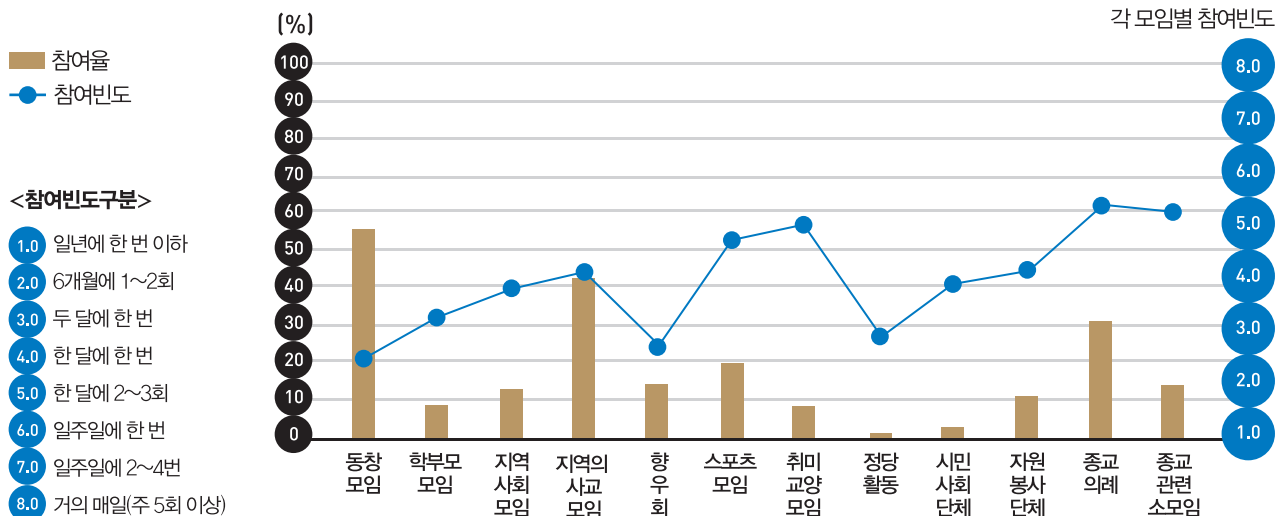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창모임의 경우 전체 12가지의 사회모임 중 참여빈도가 가장 낮아서, 평균 6개월에 두

번 정도 참석하고 있었다. 학연에 기반한 동창모임이 베이비부머들이 참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모임이지만, 실제로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는 종교관련 활동이나 취미나 스포츠모임, 사교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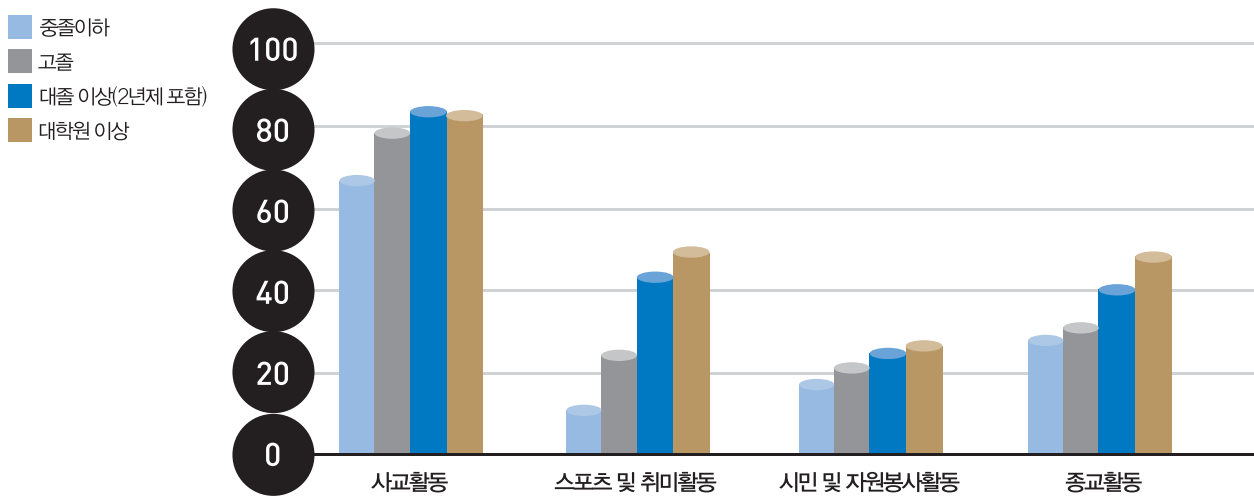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의 5분의 1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모임과 같은 사회참여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모임(예: 부녀회, 마을자치회활동)이나 시민사회 모임, 정당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civic engagement) 성격의 활동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의 21% 정도이다. 사회참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활동으로, 베이비부머들의 13.5%가 지

↓ 베이비부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동창모임이고, 참여빈도가 높은 활동은 종교활동과 여가활동이다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이 사회활동참여도 더 활발하다



역사회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원봉사모임(11.48%), 시민사회단체(3.8%), 정당(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남성과 취업여성,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사회모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과 취업상태, 그리고 계층적 위치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취업남성이 비취업남성에 비해 각 모임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활발하게 사회모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가 사회모임 참여에 갖는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게 상반된 것이다.

또한 교육이나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및 여가활동과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친목, 동창 및 향우회 같은 사교모임에서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친구나 사회적 모임에의 참여는 개인의 삶을 의미있게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노년기로 진입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게 될까? 일반적으로 은퇴는 소득과 자원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은퇴가 여가시간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

서 친구관계나 모임에의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 자본이 은퇴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노년기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친구관계가 긴밀한데 반해 친척이나 형제자매와의 만남과 연락은 상대적으로 뜸하고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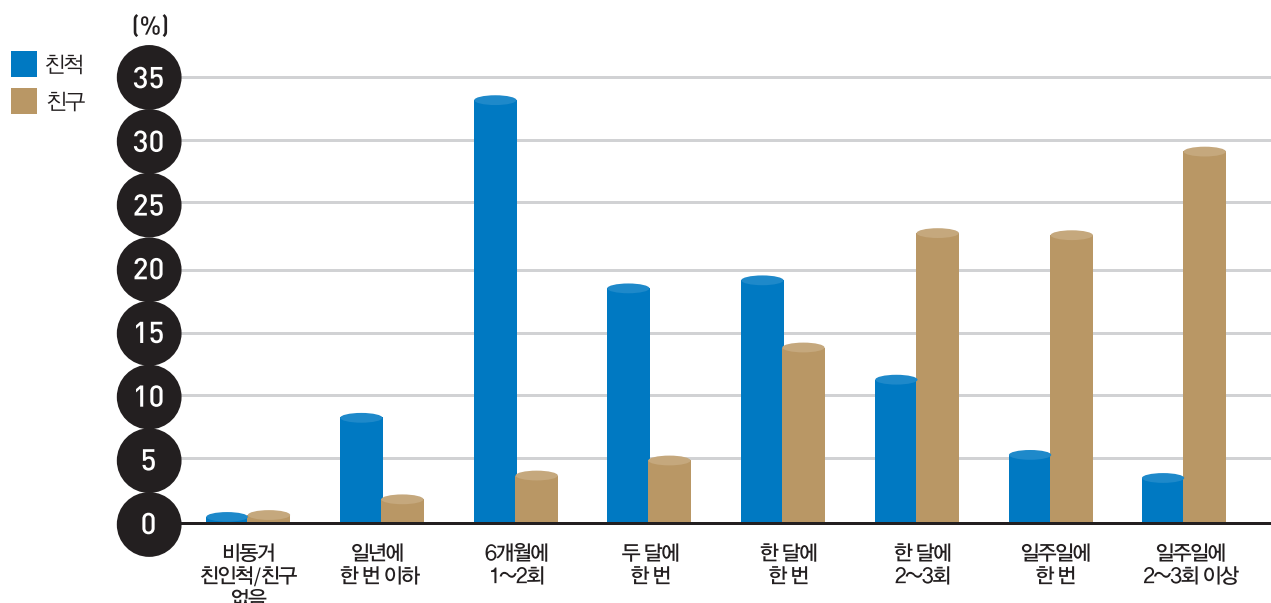
베이비부머들은 친척(형제자매 포함)과 주로 6개월에 한 두번(35%) 혹은 두 달 내지 한 달에 한 번(18%) 정도로 만나는 반면, 친구와의 만남은 주로 일주일에 2~3회 이상(30%) 혹은 일주일에 한 두번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주 만

나는 ‘친밀한 사람’의 크기를 보면, 친척은 2~3명인데 비해 친구는 7~8명으로 훨씬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친척보다는 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한해 베이비부머들이 경험한 주요 생애사건(Life events)을 살펴본 결과, 16.5%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를 경험하였고, 13.9%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악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를 경험하였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16.5%이며, 다음으로 본인의 건강문제(8.4%), 배우자의 건강문제(5.4%), 부모세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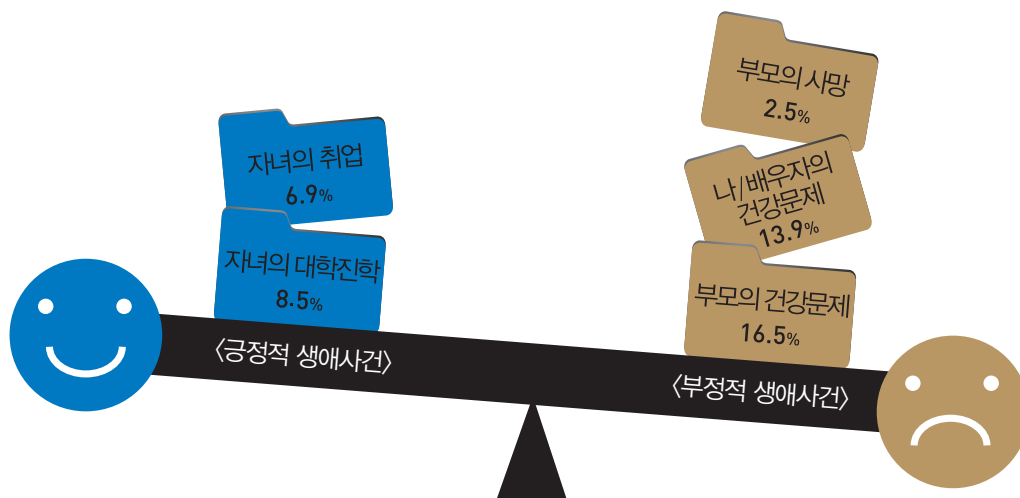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친구와 자주 만나지만 친척과의 만남은 뜸하다



사망(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28.4%가 대학진학이나 취업, 결혼과 같은 자녀의 성인기 전이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이 경험한 주요 생애사건들은, 베이비부머들의 중간 세대로서의 위치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의 건강악화와 사망이 빈번해지면서 간병 요구가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노부모가 사망하면서 베이비부머들이 가족내에서 제일 윗세대로 이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베이비부머들은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우리기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악화가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가족 및 세대적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요구들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자원과 에너지 배분의 차원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설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생애사건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중노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애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 전략마련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베이비부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원의 건강관련 사건과 자녀의 성인기 전이 사건을 경험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건강



베이비부머 5명 중 2명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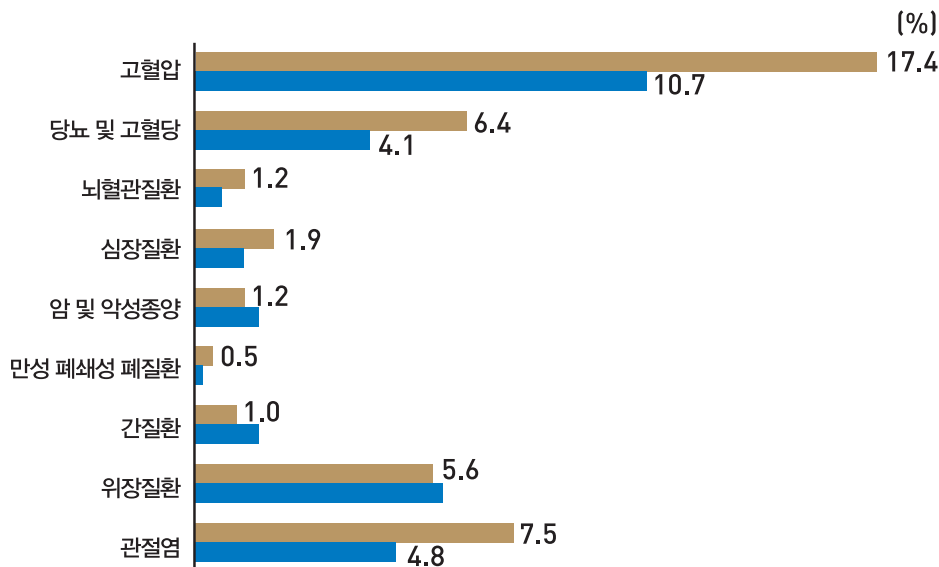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의 34%가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으로 베이비부머들의 14.2%가 의사로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은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 베이비부머들에게 많은 신체 질환은 관절염(6.2%), 위장질환(5.7%), 당뇨 및 고혈당(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 남녀에게 빈번한 위장질환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은 연령과 함께 그 이환율도 증가하는 성인병이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베이비부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체적 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베이비부머의 13.5%가 지난 1년간 우울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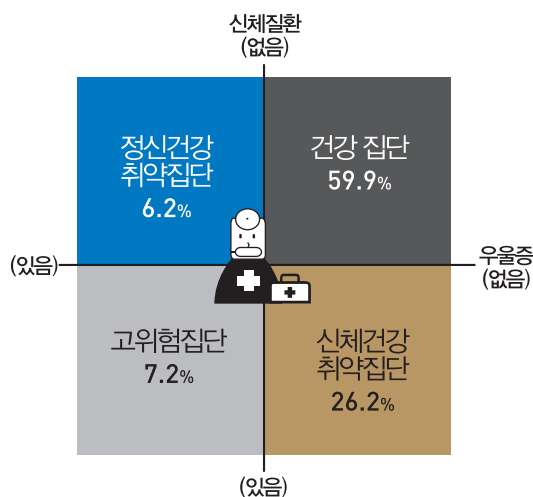
응답자도 전체의 8.2%에 달한다. 신체질환과 우울증을 통해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해보면, 베이비부머의 40% 정도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베이비부머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1955~59년에 출생한 전기베이비부머들이 1960~63년에 출생한 후기베이비부머에 비해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10% 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가 건강 악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문제의 악화가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 그리고 건강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건강 궤적(health trajectories)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추적이 요구된다.

↓ 베이비부머 내부에서도 연령에 따른 신체 질환율의 차이가 크다



↓ 베이비부머의 건강 상태 유형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와 우울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교차분석하여 베이비부머들의 건강 상태를 유형화하였다(〈베이비부머의 건강 상태 유형〉 참조). 베이비부머의 60% 정도가 신체 질환도 없고 우울증도 없는 ‘건강 집단’에 속한다. 신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우울증은 없는 ‘신체건강 취약집단’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26.6%이며, 신체 질환은 없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 취약집단’은 6.2%이다. 나머지 7.2%는 신체 질환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 ‘고위험집단’이다.

각 건강 유형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가구소득(가구균등화소득)을 4분위로 구분할 때 1분위(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25%)에 있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지며, 직업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여성이 ‘고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신체건강문제와 정신건강문제를 모두 겪고 있는 ‘고위험집단’의 건강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고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5명 중 3명이 운동과 정기적 건강검진을 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베이비부머 2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위험음주군’에 속한다.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행동을 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62.7%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60%는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상당히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이용이나 의료정보의 이해, 그리고 셀프 케어(self-care)의 능력을 의미하는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베이비부머의 76.9%가 건강문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건강문해력 수준도 높지만, 건강위해행동(health-risk behavior)을 하는 비율 또한 상당하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46.2%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일주일에 2회 이상, 일회 평균 소주 7잔 이상 술을 마시는 ‘위험음주군’의 비율도 22.3%나 된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흡연율과 ‘위험음주군’ 비율이 각각 3%, 1.7%로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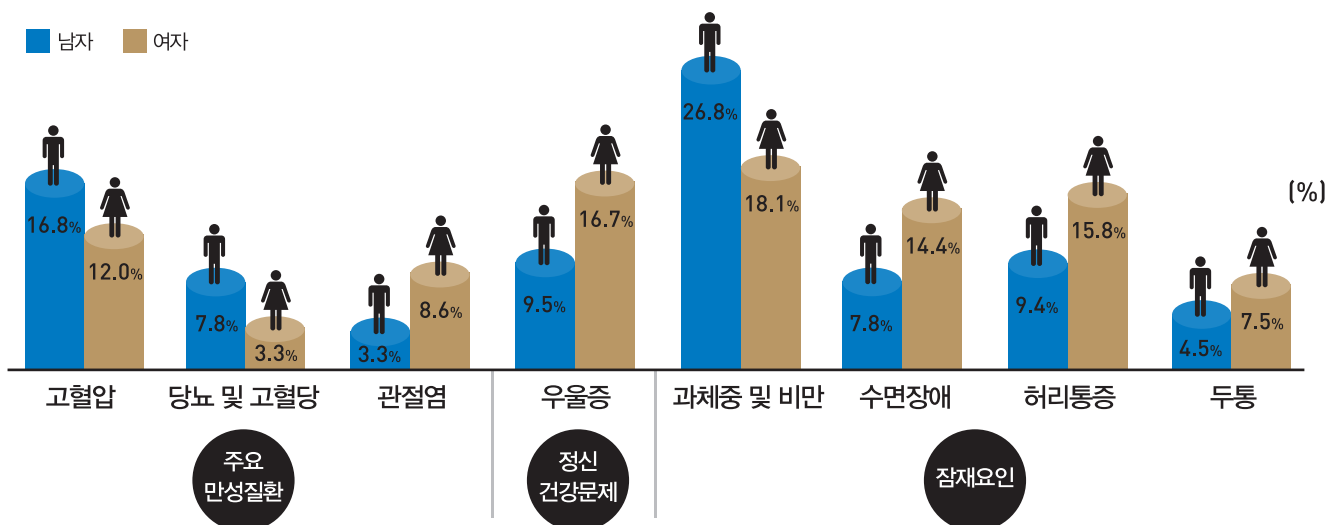
한국의 중년남성들이 지나친 흡연과 음주, 그리고 과로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

년 전체 알코올 관련 사망률을 보면, 남성이 여성의 9.5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노년기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에서도 관찰된다. 2009년 65세 이상 여성의 간암 사망률¹¹⁾은 61.9인데 비해 남성 노인의 간암 사망률은 171.1로 3배 정도 더 높으며, 폐암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의 4배 정도이다(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금연구역의 확대나 담배가격 인상 등 국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남성 베이비부머들의 절반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현재의 금연정책들이 베이비부머 남성들에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 남성들의 건강위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가 경험하는 건강문제의 양상이 상이하여, 이러한 차이가 베이비부머의 건강 이슈를 다루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여성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 및 고혈당의 이환율이 높은 반면, 여성 베이비부머들은 관절염과 우울증상을 겪는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질환’으로 표면화되는 부분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증상(symptoms)에서도 남성과 여성 집단간 차이가 관찰된다.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상 과체중 및 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과체중 및 비만 비율: 남성 26.8%, 여성 18.1%), 여성은 수면장애나 두통, 허리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의료 및 보건 관련 산업이나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건강 문제와 요구들을 보다

↓ 남성부머와 여성부머의 건강 문제 및 증상경험의 양상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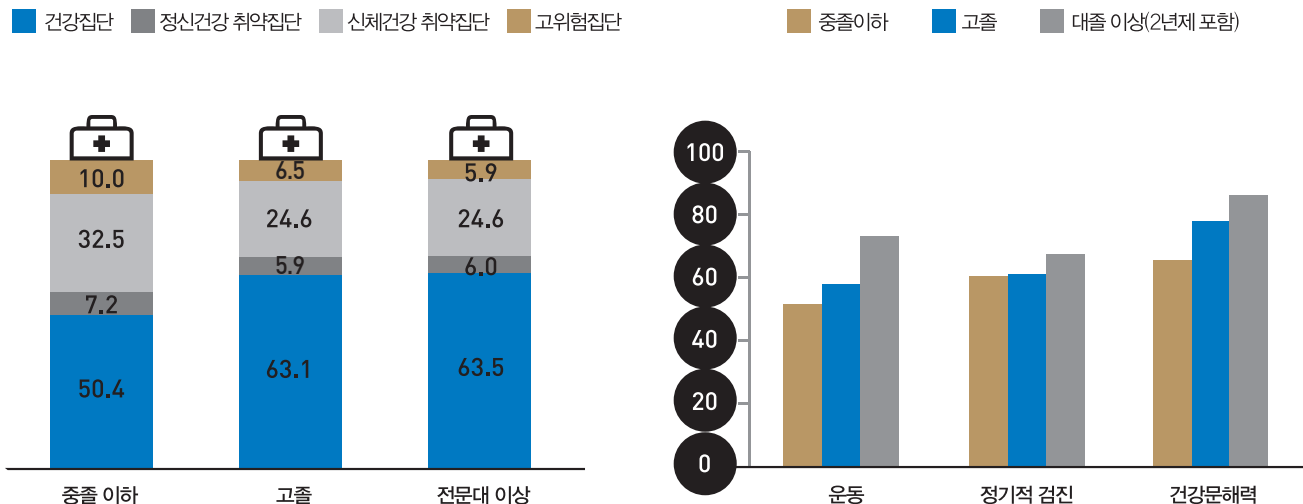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 궤적을 추적하고 그 관련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 덧붙여 여성 베이비부머들의 건강 악화가 가속화될 위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 이환이 높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폐경 이후 체중이 증가하고 질환의 이환율도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폐경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행동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어, 베이비부머 내부의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의 건강 이슈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수준에서의 내부 격차가 커진 세대로서, 이러한 교육계층의 다양성이 건강 불평등으로 연계·구체화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건강상태에 대한 유형화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문대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진 베이비부머의 63.5%가 '건강집단'에 속하는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베이비부머의 50%만이 '건강집단'에 속한다. 소득수준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양상이 관찰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건강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신체질환과 우울증을 동시에 경험하는 '고위험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또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운동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비율도 더 높고 건강문해력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건강관리행동도 더 적게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성은 생애과정에 걸쳐 누적된다.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직업경력 및 수입에서의 불리함,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부적절한 식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 등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애과정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건강에서의 불평등성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베이비부머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 그리고 구조적 장애요인들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로 인해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에 상당한 기간을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키려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의 기대수명을 생명표(2009)를 가지고 계산해보면¹²⁾, 베이비부머 여성들은 85세 정도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건강수명을 산출해보면¹³⁾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없이 살 수 있는 ‘활동제한 없는 건강수명(disability-free health expectancy)’은 71세이고 ‘주요 만성질환 없는 건강수명(disease-free health expectancy)’은 59세 정도이다. 이 예측치라면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보내는 기간은 15년 정도이고, 주요 만성질환을 경험하면서 보내는 기간은 27년 정도이다.

베이비부머 남성의 경우 80세 정도까지 살 것으로 예측되며, ‘활동제한 없는 건강수명’은 70세, ‘주요 만성질환 없는 건강수명’은 62세 정도이다.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기간은 10년 정도이고, 주요 만성질환을 경험하면서 보내는 기간은 18년

정도이다. 즉, 남성 베이비부머는 10~18년 정도를, 그리고 여성 베이비부머는 15~27년 정도를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만성질환과 활동제한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이들의 노년기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돌봄 노동 및 비용 부담을 가져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노년기의 건강은 상당 부분 중년기의 건강 및 라이프스타일의 연속선상에서 결정된다. 베이비부머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완화시키고 건강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개인과 국가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

¹²⁾ 베이비부머의 기대수명은 각 세별 기대여명을 통해 산출하였다.

¹³⁾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수명은 45~49세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여명과 50~54세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여명(보건사회연구원, 2008)을 통해 산출하였다.

결론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노년기 삶에서의 불평등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 고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베이비부머들의 가족생활이나 직업경로에서부터 재무상황,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연령과 젠더,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계층적 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이러한 다양성은, 하위집단에 따라 삶의 욕구들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들 코호트 구성원들의 다양성, 이질성에 기초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문적으로는 집단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을 심층 파악하고, 이러한 유형화의 기저에 놓인 복합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들 유형집단간에 존재하는 현재의 삶의 질의 차이와 관련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이 성공적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자들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마켓과 정책입안자들 또한 베이비부머 관련 서비스와 상품, 정책 고안에 있어 베이비부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의 상황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관찰되는 이질성이 어떻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으로 연계·구체화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유리함 혹은 불리함은 생애과정에 걸쳐 누적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에게서 현재 관찰되는 이질성과 불평등성이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이 늦기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에 선 베이비부머,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직장과 자녀양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점차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그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노부모 세대가 사망하고 자녀의 진수가 이루어지면서 베이비부머들의 세대 위치와 역할들 또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베이비부머들의 건강상태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조건과 상황들의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중년세대에 대한 연구자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기적 생애단계인 중년기에 속하는 부머들의 현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모습과 질(quality)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와중에 있는 전환기적 세대의 특성상 노년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년기를 위해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본이 부족하다. 베이비 부머들이 살아가야 하는 노년기는 그들이 보고 자라왔던 그것과는 상이하게 다를 것이다. 노년기 준비를 위한 삶의 지침이 없이, 그들만의 새로운 노년 문화를 개척해 가야하는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과연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끼인 세대”로서의 부담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의 부양 부담을 완회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은 자녀세대와 노부모 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세대(middle generation)로서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로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윗세대에 대한 부양과 아래 자녀세대 대한 양육 책임사이에 “끼인 세대(sandwiched generation)”로서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 조사결과, “끼인 세대”로서의 특성은 현재로서는 강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베이비부머의 부모들이 80세 이상의 초고령기에 진입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손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담과 노부모 부담의 이중 부담에 힘겨워할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대안과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베이비부머 자신은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라는 의미에서 변화하는 가족 사이에 “끼인 세대”인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과연 누가 베이비부머들을 부양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경우처럼 돌봄 기능을 가족,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 3자 체계화하는 정책과 관련 서비스구축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현실적 정보와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서구 및 일본의 경우처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의 확대 또한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노화에 대한 개인, 사회, 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베이비부머들의 현재의 모습을 가족과 직업, 재무,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건강 등 삶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삶의 측면에서 베이비부머들의 현재는 어떠한 모습이며, 이들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부각될 쟁점들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나마 이 책자에 담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들의 노화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개인적, 가족,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쟁점들은 개인과 마켓,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이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문제시’하고, 현재 삶의 조건에서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삶의 암울함에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삶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베이비부머의 삶은 직업과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은퇴와 자녀의 독립 이후 베이비부머들이 삶을 어떻게 기획, 재편성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첨예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어 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노후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있어, 가족에서부터 재무,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 생애설계에 대한 개인 수준에서의 준비, 은퇴 후 삶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위한 기업차원의 프로그램 제공, 국가의 정책마련 이러한 3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

은기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화 (전남대학교 교수)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주현 (서울대학교 연구원)

조사기관 한국갤럽

참여 기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SNU Institute on Aging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프로그램과 전략을 발달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2006년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간생태학, 농업과학, 공학, 의학 및 치의학 그리고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고령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 세대 간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과 관련된 제반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개발 등 협동의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는 바입니다. 노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고령사회 적응과 장수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ioa.snu.ac.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관 102호

(02)740-8505~6

ioas@snu.ac.kr

참여 기관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MMI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MMI(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는 노령화, 장수, 그리고 세대간 연구를 주로 하는 메트라이프의 전문 기관으로서, 기업, 언론, 사회의 여론 주도층 및 공공 분야에서 폭 넓게 그 성가를 인정 받고 있는 선도적 연구 기관이다. MMI의 여러 조사 연구 결과, 전문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및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들은 40대 이상의 소비층을 겨냥한 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에 그 시장에 대한 확장된 지식과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MMI는 인간 삶에 관련된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는 메트라이프의 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보험, 연금, 기업연금등을 통해 약9천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자회사 지점등을 통해 미국, 일본, 남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업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MatureMarketInstitute.com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57 Green Farms Rd.
Westport, CT 06880
(203)221-6580
MatureMarketInstitute@MetLife.com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참여 기관



MetLife Korea Foundation

MetLife Korea Foundation

MetLife Korea Foundation은 소외 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MetLife생명은 69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 200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아동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 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좋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metlifewelfare.org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MetLife Korea Foundation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
(02)553-3732/3780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SNU Institute on Aging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후원
MetLife Korea Foundation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연구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 및 공동연구자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John N. Migliaccio, Director of Research

후원 **MetLife Korea Foundation**

